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8월 19일)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부처님, 피해 없으신지요

역대급 태풍이었던 '힌남노'에 의해 경주 지역 불교문화재들이 피해를 입었다. 보물로 지정된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은 주변 토사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청은 9월 7일 경주 지역 현장시찰 및 점검을 시행했다. 사진은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을 살펴보는 문화재청 관계자들. **사진제공=문화재청**

태풍 힌남노에 세계유산 석굴암·불국사 피해

역대급 태풍이었던 '힌남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가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9월 7일 태풍 '힌남노' 관련 문화재 피해 상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주 지역 불교문화재와 사찰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경주 석굴암 석굴(국보)은 경내 진입로와 종무소 마당, 화장실이 훼손됐다. 경주 불국사(사적)는 극락전 기와가 탈락됐으며, 주변 수목이 강풍으로 피해를 입었다. 보물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은 주변 석축과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경주 굴불사지 석조사면불상(보물) 주변 토사가 붕괴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석굴암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경주 불국사와 기림사, 굴불사지에 대해서는 현장 정리를 시행했다. 또한 문화재 피해가 집중된 경주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7일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피해 직후 추가 피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피해 문화재에 대한 응급조치도 시행 중"이라며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에도 피해문화재 보수 관련 편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제 대응에 남부 지역 사찰 큰 피해 없어

불교문화재에 대한 피해는 발생했지만,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한반도 남부 주요 사찰들은 큰 피해가 없었다. 이는 사찰들의 철저한 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보운)는 태풍 힌남노가 예고된 직후부터 주요 전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9월 5~6일 야간에는 소임자들이 교대로 순찰조를 편성, 밤새 도량을 돌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는 태풍이 물러간 9월 7일에도 수말사에 연락해서 태풍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범어사는 "조사결과 안적사, 흥부암, 성주사 등 몇몇 사찰에서 경미한 피해가 확인됐고, 이를 총무원 사회부에 전달했다. 본사에서도 해당 사찰에 대한 지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주지 현문)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미디어아트 축제의 개막 행사를 연기했다. 폭우로 갑작스럽게 계곡물이 불어날 것을 염려해 도량에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전각과 시설물들을 점검했다.

피해를 겪은 사찰도 몇군데 있지만 경미한 수준이다.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는 강풍으로 인해 기와가 일부 탈락했고 한라산 기슭에 자리한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도 일부 전각에서 기왓장이 떨어지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조계종 복지재단 이재민 돕기 긴급 모금

조계종은 이번 태풍으로 사찰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이재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30일까지 긴급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태풍 예고 때부터 전국에 운영하는 사회복지 산하시설에 피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피해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긴급모금으로 모연된 기금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계종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태풍 루사와 매미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기억이 생생하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상심이 클 것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고 위로를 전하고 "피해보고가 있으면 신속하게 논의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풍 피해 이재민 돕기 긴급 모금은 9월 30일까지 온라인(하나은행 271-910006-64104,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02)723-5101

신성민·임은호 기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석학들 머리 맞댄다

한마음과학원, 9월 23~25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국제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공생의 삶' 주제로
미국 등 8개국 석학 20여명 참석
인류 위기·종교역할 논의 예정
이스라엘·UAE 주한대사 특강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기후 위기 등 지구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공생(共生)의 실천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9월 23~25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캐나다·독일·이스라엘·아랍에미레이트·대만·아르헨티나 등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한다.

3일간 이뤄지는 국제학술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 2회, 발표세션 6개와 특별세션 1개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으로는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이 '만물만생과 통하는 한마음'을 진행하며, 특별강연자로는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주한대사와 압둘라 샤이프 알 누아이미 아랍에미레이트 주한대사가 참여한다.

발표 세션은 △현대사회와 종교의 실천적 역할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 △관법 수행과 소통 △공생과 사회적 실천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 등으로 구성됐다.

'현대사회와 종교의 실천적 역할' 세션에서는 △우리를 통합하고 분열시켜 온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상호연결과 화합을 창출하기 위한 미국과 후기성도의 관점(브렛 G. 샤프스 교수, 미국 브리검영대) △한국 현대사회에서 선불교를 가르치기 위한 대행 선사의 선법가 활용(청고 스님,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이 발표된다.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 세션에서는 △2019년 팬데믹,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21세기의 패러다임(구스타보 아드리안 델 벤토, 아르헨티나 국가 의회 하원) △펜데믹과 죽음의 그늘속에서 영적 보살핌의 필요성(만프레드 후터 교수, 독일 본대학) △코로나 19: 어려운 문제, 어려운 해결책(던스턴 로비두 수사, 미국 세인트 앤셀름 수도원)가 소개된다.



혜근 스님 | 압둘라 샤이프 알 누아이미 | 아키바 토르 | 브렛 G. 샤프스 | 만프레드 후터 | 던스턴 로비두 수사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 세션을 통해서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정상만 교사, 파평중학교) △새로운 실천, 새로운 가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디지털 윤리의 관점(올리버 쾰르너 교수,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학)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스 큉과 대행 선사 제안 비교(혜유 스님, 독일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대행 선사 마음의 소리 없는 울림: 리듬과 패턴(김재영 교수, 서강대)가 발표된다.

'관법 수행과 소통' 세션에서는 △COVID-19 팬데믹 시대에 전문 번역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소통의 가교 구축(고효림 통번역사, 아르헨티나 한마음선원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지표 개발(유정오 박사, 진주교육대)가, '공생과 사회적 실천' 세션에서는 △전염병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치엔테 린 교수, 대만 츠지대학)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진정성 리더십의 가능성 연구(김영래 박사, 한마음과학원)가 각각 소개된다.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 세션에서는 △붙들면 죽고, 놓으면 산다: 관 수행법, 마음(리까르도 다니엘 블랑꼬 의사, 아르헨티나 의료협회) △암 치유를 위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장미란 박사, 연세대 의과대학, 한마음과학원의 김미지·김종훈·김주현·이준엽) △들이고 내는 한자리: 의식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한스욕 에플레 교수, 독일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이 발표된다.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이자 한마음과학원장인 혜수 스님은 "공생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과학적 연구는 물론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묘공당 대행 선사가 한마음과학원을 설립한 유지에 따라, 이런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꾸준히 협력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국제학술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실 설악 무산

낙산사 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전화 033)672-2447~8 www.naksansa.or.kr

원행 스님 "백만 서원 모아 절망을 희망으로"

추석명절 앞두고 각계 인연에 4년 소회 인사

총무원장 임기만료 한달 전
편지글과 저서 〈당부〉 선물
"세상 향한 원력 포기 않고
매사 고민했던 시간 스친다"
"진심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2018년 제36대 총무원장 취임식에서 원행 스님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 27일 임기만료를 앞두고 각계 인연들에 지난 4년간의 소회와 당부를 담은 인사말을 전했다.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만 송이 서원의 꽃으로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고자 했던 소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명절인사의 일환으로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담은 편지글을 동봉해 저서 〈당부(불광출판사)〉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매년 명절을 맞아 각계 오피니언 리더 등에 직접 선정한 책을 선물로 보내며 교류해 왔다. 올해 추석은 총무원장 소임자로서 마지막 명절인 만큼, 책과 함께 각별한 감사와 당부를 전했다.

인사말에서 원행 스님은 "소납은 4년간의 큰 중책을 내려놓고 이제 회향을 앞두고 있다"며 "종단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딛고 신뢰받는 종단으로 향하는 기나긴 여정의 마무리를 앞두고 촌각을 다투면서 매사에 고심했던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회상했다.

36대 총무원 집행부는 출범 후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전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한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역대 집행부에서는 겪지 못했던 유례없는 고충을 겪었다. 외부적으로는 정부 방역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 사회 안정에 토대를 둔 모범적인 종교로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찰 재정 및 신도들의 신행 단절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희생을 감내해야 했고 종무행정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원행 스님은 "지난 4년을 회상할 때 특별한 순간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글로 전함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36대 집행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백만원력결집불사에 대한 의미도 짚었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한국불교에 닥친 위기상황 속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토대가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십시일반 모연을 통해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와 세종 광제사 건립,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 등 두드러진 성과를 냈으며 종단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각 분야 대작불사들이 지속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이라는 큰 서원을 세우고 불교중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고 불교의 미래를 위한 마음 하나로 매순간 최선을 다했음을 고한다"며 "백만 송이 서원의 꽃으로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고자 희망했던 소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아낸 원력을 차기 집행부와 사부대중이 이어가길 바라는 당부도 전했다.

스님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새로운 집행부에서 잘 마무리해 줄 것으로 믿고 저는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 성심으로 종단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우리 모두 부처님의 그늘 속에서 청량함을 이루고 다함께 불국토가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인사말과 함께 동봉한 스님의 저서 〈당부〉는 2018년 9월 28일 '소통과 화합,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발원으로 36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후 4년간의 여정을 사진기록과 법문으로 담아낸 책이다. 스님은 "추석을 맞아 지난 4년간 총무원장으로서 고심하며 활동했던 기록을 사부대중과 나누고자 한다"며 "세상을 향한 원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동행하고자 하는 바람을 소박한 글로 담아냈다"고 의미를 전했다.

조계종, 10월 13일 제18대 종회의원 선거

중앙선관위, 9월 7일 공고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
9월 20~22일 후보등록기간
10월 10일 직능대표선출회의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및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가 10월 13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중앙선관위)는 9월 7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정을 공고했다.

'제18대 중앙종회의원 및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 공고에 따르면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일은 10월 1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이날 제8대 교구종회의원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종회의원 후보 등록기간은 9월 20~22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이며, 겸직금지 소임자가 입후보할 경우 후보 등록 하루 전인 9월 19일까지 해당직을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은 9월 27일부터 29일로,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열람은 해당 교구본사 종무소에서 진행된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상 미등록법인 및 사설사암 주지일 경우 제외된다. 입후보자는 등록신청서와 수행이력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종법준수각서와 투·개표참관인 신고서 등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은 해당 교구의 법계 중덕 이상 재적승에 주어지며 △교구 본말사 주지 △교구본사에서 임명받아 2년 이상 상근한 국장 이상 종무원으로 해당 교구본사에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 △선거일 기준 4년 이내 시점에 해당교구서 4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교구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 및 해당본사에서 결계와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비구승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거주승 신고는 9월 13~19일 오전 10시~오후 5시 해당 교구본사 종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은 9월 27~29일 해당 교구 종무소에서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9월 29일 종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에 이어, 10월 7일 종회의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18대 중앙종회 직능대표 및 비구니 종회의원은 10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서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출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왼쪽부터 총무국장 상준, 옥천암 주지 원경, 화계사 주지 우봉,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총무원장 원행, 호압사 주지 현민, 광제사 주지 원묵, 기획국장 미수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신임단장에 원명 스님

직할교구 사찰 주지도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원명 스님을 임명했다. 또 직할교구 서울 화계사 주지에 우봉, 서울 호압사 주지에 현민, 세종 광제사 주지에 원묵, 서울 옥천암 주지에 원경 스님을 각각 임명했으며, 총무원 총무국장에 前 기획국장 상준 스님, 기획국장에 미수 스님을 새롭게 임명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 각자 소임을 다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사찰 운영과 포교, 복지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KCRP, "국가보안법 2·7조 위헌결정" 촉구

9월 7일 7대 종단대표 호소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산물"

오랜 기간 국가보안법이 가진 모순과 억압적 상황에 우려를 표해왔던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손진우, KCRP)가 반국가단체와 찬양 고무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KCRP는 9월 7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9월 15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공개 변론을 통해 두 조항이 위헌임이 선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CRP는 "국가보안법은 존재만으로도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금지하는 예술 표현,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나아가 우리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의 위헌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국가 안보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형법이 다루는 사안임으로 이에 따른 혼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을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표현한 KCRP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역량과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라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 역량과 발전상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한 선택을 요청한 KCRP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굳게 세워지도록 한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8월 29일 열린 조계종 제6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

조계종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

8월 16~29일 한국문화연수원서
남행자 21명 여행자 14명 입교해
행자 전원 5급 승가고시에 합격

조계종 제6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이 원만 회향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63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21명, 여행자 14명이 입교했고, 총 35명의 행자들은 14일간 수계교육을 거쳐 5급 승가고시에 전원 합격, 사미·사미니계를 받았다.

수계교육 기간 중 성실하고 여법한 수행자의 자세로 교육에 임한 모범 행자 표창은 법암 사미와 향원 사미니, 5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표창은 관송 사미와 혜림 사미니가 받았다.

이번 수계교육 특별법문은 금정총림 범어사 율주 경선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했고, 특강은 '불교전통문화와 승가의 역할'을 주제로 前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현대사회와 출가자의 역할'을 주제로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 '수행자로서의 삶'을 주제로 기본선원장 대전 스님이 강의를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도난 독성도 · 신중도, '무상기증'으로 돌아왔다

조계종, 9월 6일 '도난 성보 환수 고불식' 봉행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1987 · 2000년 용연사 · 천은사서 도난
태고종 사찰 2곳서 기증받아 소장해
시 · 도지정문화재 지정 위한 조사서
도난 성보 확인돼… 단속반서도 조사

두 사찰 "도난 성보 가질 수야" 기증
재판없이 기증 형태로 환수된 첫 사례
조계종, 기증자 · 제보자 감사패 전달



조계종 총무원은 9월 6일 도난됐다가 환수된 대구 용연사 독성도, 천은사 도계암 신중도의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환수 불화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도난됐던 불화 2점이 본래 사찰로 환지본처됐다. 이 불화들은 도난 성보임이 확인되자 소장 사찰 측에서 무상으로 원 소장 사찰에 기증 의사를 밝혀 환수되는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9월 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도난 성보 환수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고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삼혜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 최응천 문화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환수되는 독성도와 신중도는 각각 1987년 8월, 2000년 10월 도난됐으며, 발견 당시 태고종 사찰인 부산 백운사(주지 대원)와 거제 대원사(주지 자원)에 각각 봉안돼 있었다.

환수 과정은 드라마틱했다. 부산 백운사와 거제 대원사는 최근 해당 불화들을 시 ·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했고, 조사과정에서 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불화들이 도난 성보임을 확인해 문화재사범단속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문화재사범단속팀은 해당 불화의 도난 및 입수 과정을 살피고 두 사찰과의 협의도 진행했다.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은 "문화재 지정조사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도난 성보임을 바로 알아봤다. 문화재청의 도난문화재 DB와 조계종이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면서 "곧장 문화재사범단속반에 신고했고, 단속반에서 이후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 백운사에 소장됐던 독성도는 본래 대구 용연사에 봉안됐던 독성도로 1871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백운사는 해당 불화를 평소 교류가 있던 스님에게 2018년 입적하기 전 기증받아 소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 대원사가 소장한 신중도는 구례 천은사 도계암에 봉안된 것으로 조성 연대는 1897년이다. 화기는 출처가 기록된 부분만 의도적으로 훼손했으나 전체적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서울 종로구 가회동 명인박물관(관장 이무웅)으로부터 2019년 11월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 독성도와 신중도가 도난 성보임을 안 부산 백운사와 거제 대원사도 크게 마음을 냈다. 백운사와 대원사 주지 스님들은 해당 불화가 도난문화재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신앙의 대상인 탱화가 지금이라도 환지본처 돼야 한다. 앞으로 불교문화재가 도난당하는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조계종 측에 무상 기증키로 했다.

부산 백운사 주지 대원 스님을 대신해 고불식에 참석한 태고종부산교구 총무국장 보신 스님은 "부처님의 성보가 도난됐다면 우주 끝까지 찾아가서 환지본처시키는 것이 사문의 의무"라며 "도난된 사실을 안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집을 나온 성보가 제자리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예경 의식으로 시작된 이날 고불식은 헌향, 헌다,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환수 경과, 인사말, 축사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환지본처한 문화재는 문화재청이 도난 성보를 종단에 직접 반환하는 첫 사례로, 도난 성보의 환수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기증의 형식으로 사찰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종단과 문화재청이 도난 성보를 환수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했던 결과이기에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아온 성보는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되찾고, 더불어 예경의 대상으로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성보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는 것을 두 스님께서 무상 기증으로 몸소 보여주셨다"면서 "두 스님의 큰 마음은 종파를 초월한 선행으로 빛나 한국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도난 문화재나 선의로 취득한 도난문화재라도 지속적인 설득과 합의를 유도해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도난 문화재에 대한 공소시효의 연장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등 다양한 제도와 개선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도난을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이날 고불식에서 기증자인 부산 백운사 주지 대원 스님과 거제 대원사 주지 자원 스님, 제보자인 김미경 문화재감정위원, 공로자인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재사범단속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전국여성불자회, 종령기구로 법적토대 마련

조계종 포교원, 시행령 입법예고
지원 ·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회칙 및 임원구성 · 조직 등 명시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여성불자회 지원 ·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종령기구로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전국여성불자회는 종단 보조금 등 운영예산 일부를 종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가운데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회칙을 토대로 한 독립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9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를 비롯, 설립 후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종단의 지원 ·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사항을 큰 틀에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에는 전국여성불자회가 종령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임원 구성 및 운영위원회, 사무국 및 산하기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다. 조계종 여성신도들로 구성돼 종단 예산을 지원하는 조직인만큼, 종단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 · 유지하기 위한 토대다. 다만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실질적인 운영은 회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전국여성불자회는 여성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종단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종단 외호와 발전을 위한 활동 △교구 및 직능별 조직 활동의 지원과 관리 △여성불교 전문지도자 발굴 및 연구 · 교육사업 △환경 · 가정 · 인권 등 사회공익 및 지원사업 △전통문화 계승을 통한 불교문화 확산 사업 △소외계층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총재는 조계종 포교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감사로 조계종 신도자격을 갖춰야 한다.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또 전국여성불자회는 업무 및 회계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실무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운영 및 목적사업 진행 등을 위한 산하기구 설립도 가능하다.

수입은 종단 보조금과 임원 및 회원회비, 후원금 및 수익금으로 하며 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령기구인만큼 포교원의 정기 감사 및 종무행정지도 의무도 갖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0일까지로, 9월 21일 오후 6시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환경연대 21주년 기념 후원 음악회

임현정 피아니스트 초청 공연
불교환경연대 로고송도 발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불교환경연대 21주년 기념 후원음악회의 일환으로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현정씨를 초청해 그린콘서트를 마련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해 본부지부 대표, 불교환경연대 회원 등 300여명이 함께했다. 그린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21주년 기념식에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이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더욱 튼실한 단체로 발돋움해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생태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감사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불교환경연대 前 상임대표 법일 스님, 前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 정우식, 이봉규, 신동헌, 최경애 활동가를 비롯해 후원회원 대표 고명석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팀장이 각각 감사패를 받았다. 김주일 기자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접수

승려복지회, 10월 1일~31일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을 신청 받는다.

승려복지회는 9월 5일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3항에 근거해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서류를 접수받는다"고 공고했다.

신청자격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는 스님이다. 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은 신청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식을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및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접수는 기간 중 재적 교구본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능하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부터 1인당 최대 월 3만 6000원이 지원된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본사
智異山大華嚴寺

조 실 금성 명선 대종사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초암 덕문

신도회&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융합교육 · 윤리 · 생사학…연구 주제 다채

동국대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학위 논문은

4차산업시대 교육 방안 제언
교학분야 논문 8편 가장 많아
만학도 故최종선 논문 '눈길'
호국불교 기원 분석 논문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25일 '2022년 가을 학위수여식' 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05명, 석사 546명, 학사 1245명 등 총 189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자 중 불교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24명으로 확인됐다. 논문 주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불교융합교육 방안부터 불교생사학, 전통교학까지 다양했다.

응용불교학 분야에서 3명의 박사가 나왔다. **구광국(응용불교학전공)**은 **'보로부두르대탑에 나타난 화엄사상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불탑인 보로부두르대탑의 조성 사상이 완본 〈화엄경〉의 우주관과 세계관, 불타관을 담아냈음을 현장 답사와 인도네시아의 〈화엄경〉 유통사를 통해 조명했다.

권진영(응용불교학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교융합교육 연구'**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사찰융합교육 △인문학 기반 불교융합교육 △명상 기반 교육 △메타버스 등 과학 기술 기반 교육의 사례를 통해 불교융합교육의 틀을 제언했다.

정일연(응용불교학전공)은 **'불교의 생명존중과 생사학 응용실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일연은 생명에 대한 불교의 시각에서 생명존중과 죽음, 생사학을 응용해 효(孝)의 필요성을 살폈다. 또한 생사교육의 실천 방안도 제안했다.

교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 직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만학도 **故 최종선(불교교학전공)**의 논문 **'19세기 한국 선리논쟁 연구'**도 있다. 저자는 조선 말기 백파 긍선과 초의 의순 사이에서 촉발된 선리에 대한 논쟁을 조명했다. 저자는 19세기 선리논쟁을 "조선 말기 불교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인 불교계에 새로운 토론문화를 확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은주(불교교학전공)는 **'〈삼국유사〉 토착신앙의 불교적 융화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삼국유사〉 내 토착신앙 관련한 조목과 일연 선사의 사상 등을 분석하고 천신신앙과 수신신앙, 산신신앙, 무속신앙 등 토착신앙이 어떻게 불교적으로 융화했는지를 살폈다.

'천태지의의 〈유마경문소〉연구–사종석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명진스님(불교교학전공)**은 천태 지의의 〈유마경문소〉 찬술 배경과 성립과정부터 내용, 특징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유마경소〉의 사중불국토(四種佛國土), 즉심정토(即心淨土)사상이 정토종에 큰 영향을 줬음을 강조했다.

선학 전공 박사학위자는 5명이 나왔다. **돈각 스님(선학전공)**은 **'〈능가경〉의 불지 수증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능가경〉의 다양한 교리체계와 사상 등을 분석하고 궁극의 불지(佛地)에 이르는 수증관에 대해 밝혔다. 이를 통해 〈능가경〉의 교리체계는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을 다양한 교설로 설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교설들은 하나의 핵심 방향, 즉 불지에 이르는 방법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음을 저자는 강조했다.

김종용(선학전공)은 **'지눌과 주희의 윤리사상 비교와 현대적 의의'**를 통해 보조국사 지눌과 유학자 주희의 윤리사상을 비교 고찰해 한국 윤리 사상의 근간을 살피고 전통 윤리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역할을 고민했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지눌과 주희 모두 자성(自性)의 지혜로 말미암아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에 지눌과 주희 모두 자신의 성품을 회복함으로써 만인이 동등한 보편적 지혜를 밝힌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도철학과 인도불교전공에서는 3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확인됐다. **고대석(인도철학전공)**은 **'불교에서 호국의 사상과 사례 연구– 한국불교의 사례를 중심으로'**로, **최현성(인도철학전공)**은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로, **박경미(인도불교전공)**는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특히 고대석은 불전에 기록된 호국 사상의 전반적 기조를 살피고 불교의 호국사상은 호법에 기반함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저자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처하는 실제 전쟁에서는 호법을 위한 호국이 선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의 대승 경전들은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12회 반야학술상 김호성 교수 선정

오는 10월 2일 시상식



제1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1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호성 교수를 선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정토불교 성립론〉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 〈출가 정신의 전개〉 등 다수의 저서와 정토불교 및 일본불교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발표해온 불교학계의 중진학자로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반야학술상의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 및 수상 기념 강연은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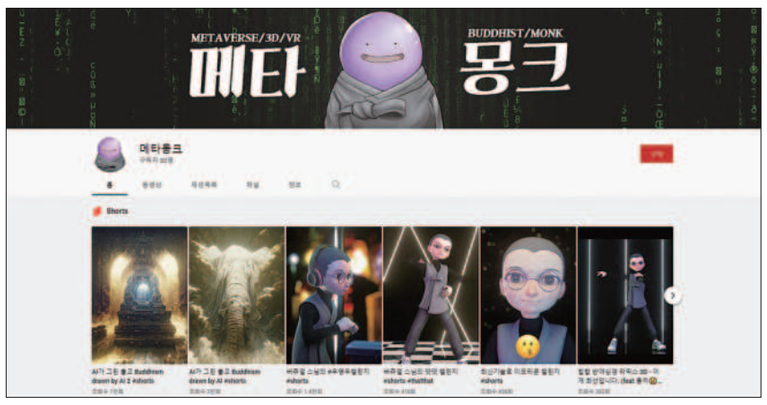
한편, 반야학술상은 불교학에서의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불교학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이 두드러진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성민 기자

"MZ세대, 불교 메타버스로 만나요"

불교크리에이터 3기 만나다

① 메타몽크 혜장 스님

2022년 영상대학원 박사 수료
3D CG 기술 활용해 자체제작
"MZ 관심 끄는 콘텐츠 만들터"



혜장 스님이 운영하는 메타몽크 유튜브 채널 갈무리.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최근 불교크리에이터 3기 4명을 선발했다. 그 중 대상에 선발된 혜장 스님은 유튜브 채널 '메타몽크' 를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목을 받은 메타버스와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한 불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메타몽크 채널(www.youtube.com/channel/UChPumz_dn_kiIbJbuGrcVtQ)은 올해 7월 2일 개설된 채널로 주로 1분 이내의 쇼츠 영상이 업로드 된다. 혜장 스님은 동국대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 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스님으로서 다년간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불교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구에 주력해왔다. 3D애니메이션과 2D일러스트, VR 등에 집중해 온 스님은 "최근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메타몽크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스님은 "CG 작업은 기본적으로 전부 수제작이기 때문에 일반 영상보다 제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개인 제작이다보니 예산이나 일정 관리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으로 스님은 한층 발전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한다. 스님은 "본격적으로 MZ세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흥미롭고 신선한 불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한다"며 "전공분야인 만큼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공유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메타몽크 채널 운영 뿐만 아니라 사찰과 불교계 기관의 콘텐츠 제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선함을 주는 첨단 미디어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VR, 3D 프린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콘텐츠가 필요해요. 메타몽크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할게요." 노덕현 기자

환란의 시대, 왜 '인왕호국경' 독송해야 하나

동국역경원, '인왕호국경' 발간
역경원장 혜거 스님 직접 감수
백진순 교수 한글 독음 · 번역
"정법수호, 국가 재난 막는 일"



"정법이 멸할 때는 괴이한 재난들이 연달아 일어나니, 국가와 자신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인왕호국경〉을 독송하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원장 혜거)은 "〈독송본 인왕호국경〉을 출간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독송본 인왕호국경〉은 불교학술원 백진순 교수가 한글 독음과 한글 번역 작업을 진행했으며,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이 직접 감수 작업을 맡았다.

〈독송본 인왕호국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 독음으로 독송할 수도 있고, 한글 번역본으로도 독송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또한 한문 원문에 주석을 단 원문교감본도 함께 수록돼 연구서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닌다.

〈인왕호국경〉의 원제명은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이다. 특히 '호국품' 에서는 "정법이 멸하려 할 때 기상이변, 외적의 침입, 괴이한 질병 등과 같은 온갖 재난들이 창궐한다"면서, 이러한 재난들로부터 국토를 수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왕백고좌(仁王百高座) 법회' 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총 120여 차례 설행됐다.

유교국가인 조선에 들어 인왕백고좌 법회는 설행되지 못했지만, 인왕산에 세워진 인왕사(仁王寺)에서 〈인왕호국경〉을 독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왕호국경〉은 "정법 수호만이 국토와 자신을 수호하는 올바른 길"임을 강조한다. 동국역경원이 〈독송본 인왕호국경〉을 발간한 이유도 〈인왕호국경〉 독송을 통해 세계적 환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동국역경원은 "한국의 불교도들이 함께 〈독송본 인왕호국경〉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모든 대중까지를 재난에서 건져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2022년 제19회 대원상 후보 공모

출가·재가 부문으로 9월 30일까지 접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2022년 제19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은 故 대원 장경호 거사가 발원한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해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하기 위한 상으로 2003년 제정 후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19회째를 맞는 대원상은 출가 부문, 재가 부문으로 나눠 공모하며 대상에 2000만 원, 특별상에 1000만 원, 장려상에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공모 접수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내딛는 한걸음마다에 생명 소중함 새깁니다”

남산 걸으며 생명존중 · 환경보호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일대에서 ‘제13회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했다. 참가자 1000여 명은 4km를 걸으며 초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생명나눔 희망선물’
⑨ 걷기명상 축제 현장

생명나눔, 9월 3일 동국대서
걷기명상 축제…1000명 동참
환경보호 확산 위한 ‘플로깅’
각종 공연 · 체험 부스도 운영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1000명의 발길이 가을을 머금은 남산 일대를 가득 채웠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일대에서 ‘제13회 걷기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3살 아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1000여 명은 4km를 걸으며 초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올해 13회째를 맞은 생명나눔 걷기명상 축제는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해 자실 및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가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특히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축제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축제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이사 명신 스님과 혜광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일 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가수 김흥국 등 사회 인사도 대거 참여해 걸음을 보탰다.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날 걷기대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발원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력을 가득 머금은 남산 숲길에서 높고 푸른 하늘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함께 걷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생명나눔 걷기명상이 생명을 존중하고 나누는 소중한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로 거듭 발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은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이라고 소개하며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남산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고 생명존중과 나눔의 소중한 가치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걷기대회는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이사장 일면 스님의 징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부부와 손잡고 걷는 노부부, 친구와 연인 등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남산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산책로 중간중간 만난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참가자들은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스님의 징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했다.


이날 축제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한 ‘플로깅’ 활동으로 진행됐다. 쓰레기를 줍는 일면 스님 모습.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청정자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직접 줍고 재활용을 분리해 가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7세 아들과 함께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에서 아침 일찍 집을 출발했다는 김영석(42) 씨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아이에게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참석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한발 한발 느린 걸음으로 청정자연을 만끽함과 동시에, 쓰레기 줍기를 통해 부모로서 아이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정현숙 후원회장이 이끄는 마하무용단의 축하공연 등 화려한 무대도 함께 열렸다.

동국대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주민 김진아(57) 씨는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남산 주변을 돌며 자연 관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마을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도 살피고 싶어 대회에 참여했다”면서 “생명나눔은 물론 우리 환경도 지킨다는 생각에 뿌듯한 주말”이라고 말했다.

걷기대회를 회향한 후 참석자들은 축하공연을 함께 즐겼다.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축하공연과 함께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태권도 시범단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고 참석자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회향 전에는 추첨을 통해 로봇청소기, 자전거, 전기밥솥 등 푸짐한 경품 증정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걷기명상 축제와 함께 만해광장에 마련된 20여 개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꽃 압화 체험, 보석십자수 만들기, 격파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자살예방 생명존중 부스가 마련돼 참가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생명존중 OX퀴즈 부스 앞은 문제를 풀면서 생명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으려는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참가자들은 “신성한 바람과 함께한 걷기대회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힐링하고 가는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산 숲길을 함께 걷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성숙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불교聯 '팔관회' 널리 알린다

9월~11월, 팔관회 고증 재현해

팔관회 팔재계 가치·의미 알려
팔재계 알려 인간성 회복 계기
팔재계 인식 위한 시민걷기 등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연등회와 더불어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대표하는 팔관회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 17일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2022 팔관회'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팔관회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팔재계 수계의식과 고증 재현한 팔관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11일까지 열리는 올 행사는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체험 및 수계', '팔재계(八齋戒) 체험 걷기대회', '팔관회',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등 새로운 기획으로 대중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팔재계(八齋戒) 체험 걷기대회

이번 팔관회의 시작을 알리는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는 9월 17일 오후 2시 초읍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다. 부산시민 등 불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에서는 팔재계를 보다 많은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알리고 현대에 맞는 실천사항을 알리기 위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등 8계의 의미와 가치를 8곳의 부스에서 각각 체험하게 된다. 8곳의 부스를 방문한 참가자들은 부스에서 발급하는 스티커 봉투를 통해 참석 인증을 받게 된다. 접수는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학생교육문화회관 야외광장에서 12시부터 시작하며, 초읍어린이대공원 내 수원지 둘레길(약 2.5km)에 조성된 걷기 코스를 따라 출발지로 돌아오면 된다. 별도의 개회식은 없으며 회향은 오후 3시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어울림한마당은 후원금 모금 및 경품 추첨, 가수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범어사 등에서 '2022 팔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2021년에 진행된 팔관회 모습.

△어린이를 위한 전통문화체험 및 수계

10월 16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특설무대에서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수계의식이 진행된다. 먼저 오전 11시에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1기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선재동자 팔관재계수계법회가 열리고, 오후 3시부터는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 마정수기 법회 '가 열린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을 운영 중이다. 연등회와 팔관회 등 불교 관련 행사 참여와 호국 관련 유적지 탐방 및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 팔관회

본 행사인 팔관회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일원에서 진행된다. 10월 16일은 어린이를 위한 수계법회가 열리고, 17일 오후 2시에는 호국기원법회와 백희가무가 진행된다. 호국기원법회는 문헌에 따라 팔관회 당시 국왕이 왕사를 모시고 국태민안과 순국장병의 왕생극락을 발원했던 법회를 재현한다. 법회에는 부산시장 등 내빈에 참석하고, 사부대중은 인왕반야경 호국품으로 호국기도문을 올린다. 백희가무는 호국 및 불교를 주제로 한 공연이다. 이번 해 백희가무 공연은 만해 한용운 스님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오후 2시에는 순국장병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한 고려 팔관회와 팔재계를 근거로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부산 지역 사찰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호국 추모 행사도 진행된다. 각 사찰들은 11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에 1분 동안 11번 타종하고 추모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에 동참한다.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턴 투워드 부산'은 2007년에 캐나다의 빈스 커트니(Vince Courtenay, 한국 전쟁 당시 종군기자)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동시묵념 및 추모행사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1월 11일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전사자 추모의 날이다. 부산 지역 사찰들은 이날 범종을 울려 추모의식에 동참하고 순국선열의 왕생극락을 발원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팔관회를 통해 국운융창과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팔재계의 중요성을 알려 인간성 회복의 기틀을 제시하고자한다"며 "팔관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가장 성대하게 진행된 대표 불교문화행사이다. 앞으로 팔관회 복원에 앞장서고 국가적 행사로 중요도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상을향기롭게'·인도 디브르가大 협약

한글학교 설립 상호 협력 협약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세종지부가 9월 1일 인도 동북부 아삼(Assam)주에 위치한 디브르가(Dibrugarh)대학교 본부에서 한글학교(Korran-language School)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세상을 향기롭게 세종지부와 디브르가대학은 앞으로 한국어교육과 양국 청년문화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세상을 향기롭게 세종지부 이기석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글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했으며, 디브르가대학교 레지스터(Prof, Parama Sunuwal)가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상을 향기롭게 세종지부는 "인도 아삼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한국어 교육 협약으로 의미가 있다. 이후 졸업생들은 한국으로의 교육진출과 양국 문화교류의 핵심인재로 양국 선린의 미래세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 동북부 아삼주는 인도 한류문화의 시작점이지만 한글교육을 위한 제반시설 및 교육기관이 전무했다. 아삼주 정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양 기관의 협약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아삼한글학교는 2023년 2월에 개교할 계획이며 4학기 2년 동안 학사과정이 운영된다. 한글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60명의 대학생 및 청년들을 선발해 교육하며 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사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박수관 회장, 소외이웃 돕기

부산 진구 소외이웃에게
5000만 원 상당 쌀 전달



부산 불자기업가 박수관 (주)YC TEC 회장이 추석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박수관 회장은 9월 5일 부산 진구청에서 '추석맞이 이웃돕기성품 전달식'을 통해 쌀 10kg 1570포(5000만 원 상당)을 부산 진구청에 전달했다.

쌀은 친환경 유기농쌀이며 부산 진구의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한 독거노인과 저소득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수관 회장은 "부산 진구는 부산에서 경제를 대변하는 핵심지역이지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곳이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잠시라도 시름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준비했다. 이번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움 가득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관 회장은 (주)YC-TEC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여러 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40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추석과 설맞이 이웃돕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 생활용품, 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끝없는 기부와 봉사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 2010년 2월 부산경남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취임한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 · 경남 지역 기업체의 베트남 진출을 비롯해 부산은행 베트남 지점 개설, 부산 나트랑 간 항공기 취항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외교관으로서의 모범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박수관 회장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범어사 신도회장,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신도회 소년소녀가정 돕기

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병호) 봉사단이 9월 1일 울산불교신도회 사무실에서 자비나눔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후원 물품은 백양사 산옹 스님의 쌀 10kg 50포, 감로사 영진 스님의 쌀 10kg 4포와 울산불교신도회 봉사단 회원들이 십시일반 준비한 라면 50박스이다. 성품은 울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협의회에 전달 후 소년소녀가정 2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필요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불교상담학회, 불교상담학술상 공모

상담심리 주제, 10월 23일까지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가 '제3회 불교상담학술상'을 공모한다.

주제는 불교상담심리 및 불교심리치유에 관한 내용이며 응모대상은 불교상담심리 관련 전공자, 관련 종사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오는 10월 23일까지 한국불교상담학회 이메일(kbca08@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 논문에는 대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장려상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중순에 열릴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한국불교상담학회 학회지인 '불교상담학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게재되며 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제외한다. 연구 내용의 표절이나 중복이 발견되면 수상 이후라도 수상작 선정은 취소된다. 010-2933-006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찰 · 복지관 추석맞이 나눔 풍성

서울 조계사, 500가구에 간편식 등
신흥사, 3500만 원 상당 자비나눔
복지관선 공동차례지내기 등 실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9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2022 추석 한가위 마음나눔전' 을 갖고 종로구청에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들은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쌀과 과일, 송편 등 추석 선물 전달을 비롯해 전통놀이 한마당,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와 행복나눔가피봉사단(단장 김문주)은 9월 3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2022 추석 한가위 마음나눔전' 을 갖고 종로구청에 추석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따듯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사와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이 준비한 마음나눔 상자 500개 속에는 참치와 국수 등 간편식과 영양제, 물티슈, 마스크, 손소독제, 초코과자, 세면도구 등이 각각 담겼다. 마음나눔 상자는 종로구 17개 동 취약계층 340가구와 장애인 160가구 총 500가구에 전달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지역 이웃들이 선물을 받고 조금이나마 풍요롭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채숙 종로구청 부구청장은 "매해 추석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해주는 조계사의 배려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복지 포교 불사에 앞장서 온 설악산 신흥사(회주 우송)는 이웃이 다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43회 '자비나누기는 행복더하기입니다' 를 개최하고 지역사회를 따뜻한 온기로 채웠다.

신흥사는 8월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속초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속초시청에 3500만 원 상당의 햅쌀과 과일선물세트, 상품권 등 선물을 총 350세대에 전달했다. 우송 스님은 "몇 년째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명절임에도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어르신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들의 정성이 지역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양식을 대접했다. 재단은 9월 7일, 서울 원각사(주지 원경)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 300여 명에게 불고기를 배식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배식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과 사무처장 해공 스님을 비롯해 자원봉사단 20여 명이 동참했다. 보인 스님은 "무더위가 끝나자마자 닥친 태풍피해로 심신이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보충을 위해 불고기를 준비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스님과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이 배불리 드실 수 있도록 불고기와 밥, 반찬을 넉넉히 담아 배식했다. 또 공양을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추석을 잘 보내시길 바라며 빵과 음료, 마스크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추석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1000여 가정에 우리 장 선물세트를 지원했다. 우리 장 선물세트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지지는 물론 전달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정서적 지지망 구축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계획됐다.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세월의 지혜와 노하우를 갖고 우리 콩으로 직접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에 각 가정에 제공된 장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추석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함께 지원함으로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추석맞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했다. 공동차례지내기를 포함해 비석치기, 투호와 같은 전통문화 한마당, 축하공연, 지방써주기 등을 진행했다. 관장 희유 스님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만큼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면서 "지역사회 다양한 기업과 봉사단체들이 동참해준 덕분에 풍성하고 의미있는 명절 행사를 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읍 내장사, 백운선사 다례재

9월 3~4일, 내장산 워터파크서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유산 등재 2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3일과 4일 정읍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열렸다.

이와 함께 정읍 고부면 출신으로 〈불조직지심체요절〉을 저술한 백운 선사를 추모하는 다례재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 해외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어울림 한마당도 함께 열렸다.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대표 호산)와 정읍시가 주최하고 내장사(주지 대원)와 백운선사직지심체기념사업회(회장 대우), 생명나눔문화(대표 도제)가 주관한 이번 행사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호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자랑스런 세계문화유산인 직지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백운 선사 다례재를 열게됐다"며 "이주민과 불교계, 우리 사회가 한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희망찬 미래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진우 스님은 "어려운 시기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벗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종본찰 봉선사, 첫 교리경시대회 연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가 첫 교리경시대회를 연다. 봉선사는 10월 1, 2일 양일간 경내 청풍루에서 '제1회 교리경시대회- 도전, 큰말씀 겨루기' 를 개최한다.

교리에 대한 관심 증대와 봉선사 개산 1053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경시대회는 제25교구 본말사 신도와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는 총 3그룹으로 운영된다. 10월 1일 오후 1시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경시대회가, 오후 3시에는 청소년 대상 경시대회가 각각 열린다. 개산대재일인 10월 2일 오후 1시에는 일반부 경시대회가 진행된다. 대회 진행은 나란다축제의 '도전, 범종을 울려라' 와 동일하며 출제 범위는 조계종본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일반상식 전반에서 이뤄진다. 봉선사는 "불교에 대한 관심과 포교활성화를 위해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한다"면서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천만사, 울산해양경찰서에 의약품 전달



대중불교조계종 총본산 울산 천만사(주지 향덕)는 9월 3일 추석을 맞아 울산해양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 직원 및 함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비나눔 물품을 전달했다. 물품으로는 라면 50박스 ,일상 의약품 500만 원 상당이 포함됐다.

천만사 주지 향덕 스님는 "울산지역민들과 해양 종사자 안전을 위해 힘쓰는 울산시 해양결찰서와 함정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한다.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하여 항상 무탈하고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신주철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생활하는 함정 직원들에게는 의약품과 물품이 필요하다"며 향덕 스님에게 감사를 전했다.

향덕 스님은 7월 27일 유기견 보호소 후원금 4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달했으며, 4월 26일 지구의날 52주년 글로벌환경포럼에서는 환경오염 해결책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반야사, 마산 회원구청에 백미 나눔



반야사는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일 대웅전 앞에서 제24회 사랑의 백미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반야사 주지 혜명 스님은 마산 회원구청에 600만 원 상당의 쌀 170포를 기탁했다.

기탁된 쌀 170포는 마산 회원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가정 및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반야사 혜명 스님, 경문스님, 박명종 회원구청장 및 관계자, 반야사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혜명 스님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의 손길이라도 되길 바란다"며 "밝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 모두가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서원한다"고 했다.

혜명 스님은 이어 "매번 설, 추석이면 사랑의 백미 전달을 하지만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지속적으로 김장김치나눔 등 자비나눔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입실건당법회



8월 31일 총본산 영양 관법사서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은 8월 31일 총본산 영양 관법사에서 입실건당법회를 봉행했다.

전통의식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서는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암도 스님과 종단 원로인 체법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섰다.

이날 암도 스님은 "참된 수행은 계 · 정 · 혜의 삼학을 기초로 진실되게 수행해야 한다"며 "복잡한 이시대가 불교에 요구하는 사상이 일상 속에서 생활불교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생활불교 속에서 인성의 꽃이 활짝 필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불국정토요 화엄의세계"라며 "입실 건당 스님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충실히 각자의 위치에서 분별심 없는 수행자로서 용맹정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1

▶ 82회 예고
드디어 아쇼까왕은 왕비 아상디밋따와 띠쉬아락시따, 출가한 마힌다와 상가밋따, 악기부라흐마를 데리고 순례를 떠난다. 우빠굽따 장로는 싯다르타 태자가 까삘라성을 떠난 이후 고행주의자 박가바와 알랄라 깔라마를 만난 인연을 설법한다.



아쇼까왕, 우빠굽따와 재회

우기에 접어든 빠딸리뿌뜨라성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비가 퍼붓기 시작하자 내성과 외성 안팎의 거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졌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아쇼까라마 회랑에 서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이티아(塔院)로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장대비가 발걸음을 막았다. 회랑을 나서는 순간 황색가사가 굵은 빗줄기에 바로 젖어버릴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수행자들의 작은 숙소인 꾸띠 너머에서 한 사문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는 낯선 사문이었다.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는 사문은 아닌 듯했다. 낯선 사문이 장대비를 피해서 회랑으로 들어섰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다가가서 말했다.

"나는 목갈리뿟다띳사라고 하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베살리를 거쳐 이곳에 왔습니다. 소승은 우빠굽따라고 하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깜짝 놀랐다.

"샤나까바시 아라한의 제자 우빠굽따 장로시란 말입니까?"

목갈리뿟다띳사는 우빠굽따 장로가 아쇼까라마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미투라 지역의 사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비구가 우빠굽따였는데,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장로가 눈앞에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로시여, 우기에도 만행을 하십니까?"

"저는 고따마 붓다께서 다녀가셨던 도시와 마을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붓다께서 그러하셨듯이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순례가 곧 수행이지요."

"오, 아난다 존자를 존숭해온 장로가 분명하군요."

"스승님 가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기에 순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물에 휩쓸려갈 수 있으니 아쇼까라마에서 우기를 보내고 떠나시오."

"저는 우기와 건기, 혹서기를 가리지 않고 순례해 왔습니다. 순례하면서 붓다와 아난다 존자가 남긴 그림자를 찾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행복을 느껴 왔지요."

"장로께서 느끼는 행복을 아쇼까 대왕님께 나눠줄 수는 없겠소? 대왕님께서는 담마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고 선언했다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을 들먹이자 우빠굽따는 다소 놀랐다.

"대왕님 소식을 어떤 사문에게 들었습니다만."

"대왕님을 아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뵌 적이 있지요. 십수 년 전입니다. 꼬삼비에서 뵀지요. 대왕님께서는 옛 아반띠국 부왕이 되시어 웃자인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저는 붓다께서 두 해 머무셨던 꼬삼비에 있었습니다."

"아, 잘 되었소. 대왕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왕님을 뵐 수 있도록 주선하겠소."

우빠굽따는 거절하지 않았다. 문득, 당시 18세였던 아쇼까 부왕의 풋풋하고 당당한 모습이 떠올랐다.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밤이었다. 아쇼까 부왕이 꼬삼비의 꾸꾸따라마 터로 찾아와 야무나강 안개가 어깨를 적실 때까지 우빠굽따는 법문을 해주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고백했다.

"언젠가 우빠굽따께서 아쇼까라마를 맡아주신다면 그때까지만 있겠다고 말씀드렸지요."

"하하하. 저는 붓다와 아난다 존자가 끝없이 길을 걸으셨듯이 숨이 다할 때까지 순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쇼까라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우빠굽따의 강한 순례의지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 아쇼까라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빗발이 가늘고 성글어졌다. 우빠굽따는 목갈리뿌다띳사를 따라서 비하르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방 하나를 우빠굽따에게 내어주고는 황색가사 한 벌을 빌려주었다.

비하르는 사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승원이었다. 장로급이 되어야만 움막 같은 꾸띠를 한 채씩 받아 홀로 수행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문이 꾸띠를 차지하는 예는 드물 터였다. 대중들 대부분은 비하르로 가서 합숙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라마의 규모를 보고 새삼 경외감이 들었다. 차이티아와 비하르, 꾸띠가 수백 동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자신이 순례해 오면서 보았던 사원의 규모 가운데 아쇼까라마가 가장 컸다. 한 사문이 오더니 우빠굽따 발에 엎드리며 입을 맞추었다.

"장로시여, 방금 목갈리뿟다띳사 스승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투라에서 오신 장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점이 있다면 소승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지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마힌다 비구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쇼까라마는 대왕님께서 조성하신 사원입니까?"

"예, 그러나 원래 이곳에는 꾸꾸따라마가 있었습니다. 꾸꾸따라마를 개보수한 사원이 아쇼까라마입니다."

"꾸꾸따라마라고요?"

"장로시여, 왜 놀라십니까?"

"제가 꼬삼비에서 대왕님을 처음 뵀던 곳도 꾸꾸따라마 터였습니다."

"어째서 꾸꾸따라마가 꼬삼비와 빠딸리뿌뜨라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꾸꾸따 부호상인이 꼬삼비와 빠딸리뿌뜨라를 오가며 장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따마 붓다 시절에는 부호상인을 장자(長者)라고 불렀는데, 꾸꾸따라는 장자가 거금을 보시하여 지은 사원이 꾸꾸따라마였을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꾸꾸따 장자는 강가강을 이용해 각 지방의 특산물을 상선에 싣고 운송하며 장사를 크게 했던 부호상인이었음이 틀림없었다. 마힌다는 끝내 아쇼까왕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빠굽따 장로에게 밝히지 않았다.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했기 때문에 굳이 우빠굽따에게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왕궁에 갔다가 돌아오자 마힌다는 슬그머니 물러났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장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오."

"벌써 십수 년이 흘렀는데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어서 왕궁으로 들어가시지요. 대왕님께서 장로를 기다리십니다."

두 장로는 왕궁으로 걸어갔다. 내리는 둥 마는 둥 하는 미세한 빗방울이 두 장로의 얼굴에 스쳤다. 두 장로가 왕궁에 들어섰을 때는 가는 빗방울에 젖은 황색 가사의 빛깔이 더욱 선명했다. 왕궁 접견실의 하인이 나타나 큰 대야에 발 씻는 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장로는 손과 발을 씻고 하인이 접견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접견실의 대왕 전용의자에 앉아 있던 아쇼까왕이 일어나 우빠굽따를 맞이했다.



"장로시여, 얼마 만이오? 반갑소."

"대왕님이시여, 다시 뵙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우빠굽따는 허리를 크게 숙여 합장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장로시여, 앉으시오."

"대왕님께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자주 불러 법문을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우빠굽따 장로는 모르시겠지만 나는 이미 '승가의 보호자'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된 왕이오."

아쇼까왕이 하는 말을 우빠굽따가 이해하지 못하자 목갈리뿟다띳사가 설명했다. 아쇼까왕은 아쇼까라마를 지어 날마다 수행자 6만여 명에게 공양을 올려 '승가의 보호자'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 마힌다와 딸 상가밋따는 물론이고 사위 악기브라흐마와 외손자 수마나를 출가시키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제야 우빠굽따가 감격하여 또 다시 앉은 채로 합장했다.

"내가 부왕이 되어 웃자인을 내려갈 때 장로를 초대했지요. 장로께서는 아침공양을 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장로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소."

"대왕님이시여, 제가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이었다. 우빠굽따는 꼬삼비에서 아쇼까왕에게 아침공양을 받은 것까지는 기억을 했지만 그 이상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그때 우빠굽따가 한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했다. 우빠굽따는 붓다의 위신력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을 평화롭게 제압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했던 것이다.

"고시따라마에서였소. 아침공양을 하기 전에 장로는 나를 위해 기도했소. 붓다의 가피를 받아 무기로 적을 살상하지 않고도 제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소."

"아, 그랬습니까?"

"장로의 기도처럼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군주가 위대한 대왕이 아니겠소? 그때 장로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는 따로 있다고 했소."

그제야 우빠굽따는 그때를 생각해 냈다. 아쇼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아쇼까를 의아하게 했던 것이다.

"대왕님이시여, 생각이 납니다. '붓다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형상 없는 무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그때 나는 장로를 비웃었던 것 같소. 붓다의 가르침도 칼보다 위대할 수 없다고 말이오. 마우리아국을 세운 것은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의 칼과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칼이었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말이오."

"지금도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으십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우빠굽따 장로시여, 대왕님은 그때와 다르십니다. 칼링가국을 정벌하시고 난 뒤 다야강에 칼을 버리셨습니다. 앞으로는 칼이 아닌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륜성왕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다오."

아쇼까왕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우빠굽따 장로의 말씀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소. 나는 장로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소.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주시오. 나는 '믿음의 상속자'에서 '담마의 실천자'가 되고 싶소."

우빠굽따는 자신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쇼까왕에게 감동했다. '담마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말한 아쇼까왕의 진심을 접하고는 기쁨이 솟구쳤다. 붓다가 머물렀던 도시나 마을로 가서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것에 못지않은 감격으로 마음이 격동되었다.

"대왕님이시여, 사문은 평생 동안 붓다께서 법을 설하시고 머무르셨던 곳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하고 실천하겠다는 저만의 수행법입니다."

"나도 장로의 수행법을 따라하고 싶소. 다만 나는 백성을 다스려야 하니 붓다의 성지라고 하더라도 매년 한두 군데밖에 갈 수 없소, 어디서부터 순례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소?"

"소승의 생각으로는 붓다께서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부터 찾아가 참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소. 나는 룸비니 동산을 참배할 것이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를 만나고 나서는 붓다가 법을 설했던 곳을 순례하기로 했다. 다만 우기가 지나가야 했다. 아쇼까왕을 호위하는 큰 규모의 일행이 이동할 것이므로 우기는 피해야 했다. 강물이 범람하고 천둥과 벼락이 치는 우기는 위험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을 안내하기 위해 그때까지 아쇼까라마에 남기로 했다.〈계속〉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소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⑰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5



▶한줄요약
보문은 한암, 경봉 등 선지식들과 수없이 질문과 답을 주고 받았다.

많은 선지식들과 선문답 법거량

12. 한암 생신날의 질문

불교 경전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제자를 비롯한 타인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데에는 깊은 뜻이 깃들어 있을 테다. 보문의 구도수행과 중생제도를 알려주는 전문과 기록에도 중요한 질문이 깃들어 있어 진지하게 읽힌다.

견성 인가 전후로 보문이 선지식을 향해 던진 질문이 많았겠는데 몇 사례만 전해진다. 먼저 한암의 생신을 맞이해 국수대중공양을 할 때 보문이 질문한 경우다. 말석에 앉아있던 보문이 한암 앞으로 나가서 절을 올리고 여쭙는다.

"오늘, 스님이 태어나셨는데, 어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법거량에 가깝다. 부모미생전(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면목이라는 화두의 답을 물은 것이이라 해석할 수 있겠지만, 불가의 상식에 어긋난다. 시간과 생일이 연결되는 〈벽암록〉 제6칙 〈운문십오일(雲門十五日)〉을 이와 연결하여 사유해 볼만하다.

운문(雲門)이 물었다. "15일 이전은 그대에게 묻지 않겠거니와 15일 이후를 한마디 일러보라"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운문이 스스로 대신해서 말했다. "나날이 생일날[日日是好日]"

시간은 물과 같이 흘러 틈이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나눌 수도 없다. 공간은 물론 시간도 공(空)하기 때문이다. 순간순간만 있고,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죽고 또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내가 태어나는 '나의 생일'이 된다. 보문이 이런 통찰에 근거하여 은사의 생일 전날 은사가 계신 곳을 물었을까? 한암은 이에 대해 어떤 답을 했을까? 혹은 침묵했을까?

13. 경봉 스님과의 법거량

보문은 경봉(鏡峰, 1892~1982)과도 두 번의 법거량을 했다. 한 번은 직접 만나서, 또 한 번은 편지를 통해서다. 그 선후가 애매하지만 직접 만난 것이 먼저라 보는 것이 옳다. 편지 문구에 "작년 선문답에서 진 것을 다시 한 번 이겨볼 계획입니다."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선문답' 은 이런 것이다.

보문은 1938년(32세)에 사미계를 받고 이듬해인 1939년(33세)에 오대산 적멸보궁으로 가서 정진한다. 그 무렵 경봉이 방문했을 것이다. 경봉이 묻는다. "오대산 적멸보궁은 참배객마다 열고 닫는다 하니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 보문이 답한다. "꽃 떨어지는 삼월 청산 속에 두견새 소리에 열고 닫기를 맡깁니다" 혹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관계없는 일이고, 자물쇠는 뻐꾸기 소리에 맡겼습니다" 혹은 "숲 속의 뱁새에게 묻지 말고 홀로 한가히 우는 꾀꼬리에게 물어 보세요" 이에 대해 경봉은 "왕대밭에 왕대 났네"라고 평했다.

선지식이 선문답을 통해 수행자를 이끌어줄 때 파주(把住)와 방행(放行) 두 방법을 쓴다. 파주가 수행자의 경지를 부정하고 곤혹스럽게 만들어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면, 방행은 격려하고 이끌어서 수행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여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한다. 보문을 '왕대' 로 지칭하고 한암 문중을 '왕대나무 밭' 으로 칭찬한 데서 경봉의 방행 의도를 짐작한다.

한암 생일날 "어젠 어디 계셨나?"
경봉과도 두 차례 선문답 법거량
선원 운영 이견으로 상원사 떠나



보문은 원융살림 등 선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했지만 이루지 못하자 상원사를 떠났다. 사진은 상원사 옛 모습.

반면 보문은 자기 답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패배를 인정한다. 보문이 자기 답변을 부정적으로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경봉의 방행에 대해서 당당한 파주로 대꾸하지 못한 것이 걸렸을 것이다. 사람이 아니라 숲속 뻐꾸기나 두견새에게 적멸보궁 열쇠를 맡긴다는 보문의 답변은 기발하다. 뻐꾸기나 두견새의 '소리' 에게 맡겼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뻐꾸기 소리나 두견새 소리는 '사람의 손' 을 비롯하여 그것이 아닌 것을 떠올려 비교하고 배제한다. '한가히 우는 꾀꼬리' 는 '숲 속의 뱁새' 를 떠올려 압도하고 배제한다. 분별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봉이 던진 분별 언어의 그물에 보문이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14. 바르게 올라타고 그만두어야

그 뒤 경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문은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 경봉이 순서를 바꾸어 답했으니 보문의 두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자. "옛글에,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그만두려면 바로 그만두라고 했으니 이것은 승가의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올라타지 않고 그만두지도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가의 일상 다반사' 라고 표현한 것은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그만두려면 바로 그만두라.' 는 구절이 〈벽암록〉 제68칙, 〈선문염송〉 제497칙, 〈대혜보각선사어록〉 등 선어록이나 선사의 법문에 두루 등장하기 때문이다. 보문은 그것을 제쳐버리고는 "올라타지 않고 그만두지도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경봉은 이 질문 자체를 문제 삼고 되묻는다. 질문에 깃든 질문자의 분별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더 꼼꼼히 따져보고 질문을 다시 하게 한다. 경봉은 또한 스스로 질문을 수정하여 되묻는다. 질문을 할 때는 질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질문하기 전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리석은 개는 돌을 던지면 돌을 물지만 영리한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의 손을 문다."라는 승가의 비유도 그런 취지다. 질문이 언어에 의해 왜곡되기 이전, 질문의 출발점 이전에 착안하는 것이다.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그만두려면 바로 그만두는 것' 을 '승가의 일상 다반사' 라며 제쳐버린 보문의 태도를 경봉은 '어름한' , 분명하지 못한 것이라 꾸짖는다. 그래서 어름하게 얼버무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살핀 뒤 명료한 질문을 만들라고 했다. 그리고 경봉은 보문의 재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는 대신 스스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 보낸다. 즉,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탄다고 했는데 당나귀를 타는가? 말을 타는가? 그만두면 바로 그만두라 했는데 서서 그만두는가? 앉아서 그만두는가? 누워서 그만두는가? 또 올라타고 그만두는 곳은 어디이며, 올라타고 그만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보문에게 질문한다. 올라타고 내리는 대상, 방식, 장소, 그리고 주체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경봉의 이 재질문 역시 선어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선문염송 염송설화〉(혜심, 각운 편저) 제497칙의 구절들이다.

'나귀를 타는가? 말을 타는가?' 란 질문은 이류중행(異類中行)을 선언한 남전(南泉)의 사연과 연결된다. 〈선문염송〉에서 장사(長沙, ?~868)는 남전이 죽어서 어디로 갔느냐는 물음에, "동쪽 집의 나귀가 되고 서쪽 집의 말이 되었다"라고 대답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묻는 질문에 "올라타려면 바로 올라타고 내리려면 바로 내려라"고 대답한다. 바로 이 국면에서 보문이 완전히 다른 질문으로 나가버렸다면, 경봉은 이 국면을 발판으로 삼아 그것을 확장하고 발전시킨 셈이다.

〈선문염송〉 제497칙에 등장하는 선승들은 수행자들이 남전의 길을 따르라고 권고한다. 가령 무진(無盡)은 "말 익히는 선객들아 정진 잘하여/ 다른 날에 남전을 계승하라."는 송(頌)을 지어 삼계를 벗어나고자 수행하던 수행자들을 절망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온갖 추측과 알음알이가 난무한다. 낭야각(瑯琊覺)은 "타려면 타고/ 내리려면 내려라/ 경쇠 소리 그친 뒤엔/ 값을 바꾸지 못하니"라고 하여 우물쭈물하거나 알음알이로 계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지만 알음알이는 끝없이 작동된다. 남전이 동쪽 집의 나귀가 되고 서쪽 집의 말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알음알이로 재느라 분답하기 이를 데 없다. 그것은 올라타고 내리는 대상, 방식, 장소, 그리고 주체에 대한 알음알이로, 경봉이 재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것들은 식정(識情, 妄識)의 소산이다. 그런 점에서 경봉의 재질문은 보문을 옭아매기 위해 던진 그물이고 파주(把住)이다. 보문이 그 질문에 이끌려 식정을 일으켜서 이런저런 알음알이에 헤매었을까? 아니면 '올라타야 할 때 바로 올라타거나' '내려야 할 때 바로 내려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을까? 이는 보문 자신의 살림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됐을 터인데, 그 다음 편지는 없다.

보문이 적멸보궁과 관련하여 던진 첫째 질문은 이러하다. "소승이 명색이 적멸보궁의 시향(侍香, 선원서 선지식 보좌하는 소임)입니다만, 무엇이 적멸보궁입니까? 또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히 오셔서 개시(開示, 가르쳐 인도함, 열어 보여줌)해 주시는 뜻으로 시를 지어 보여주소서" 이에 대해 경봉은 "현로(玄路, 보문의 출가 법명) 상인(上人)이 있는 곳에 문(門)은 몇 개가 있으며 열쇠는 어디에 두었는지 자기가 있는 집일이야 모를 리가 없으니 이것도 잘 일러 보기를 바라네" 역시 질문의 출발점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 밖과 남에게서 찾지 말고 안의 자기에게서 찾으라는 조언으로 귀결되었다.

15. 상원사를 떠나는 보문

보문은 선원의 입승으로 수행을 이어갔지만, 당시 우리나라 선원을 대표하던 상원사 선원이 한암 권속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 한암은 제방 선객들이 따르는 조실이니 더욱 그랬다. 대중살림을 공개하고 대소사를 대중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원융(圓融)살림을 하자고 한암에게 직언한다. 전각 용도도 바꾸려 했다. 법당 옆 한쪽 방을 일반 선객들이 공부를 하는 곳으로, 건너편의 방은 누구든 24시간 정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런 보문의 선원 개혁론을 한암이 기꺼이 받아들였고 다음날 아침에 공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야기를 엿들은 시자가 그 사실을 탄허에게 고했다. 보문의 선원 개혁 시도가 한암 권속들에게는 절 운영 주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비쳤다. 탄허가 한암을 뵙고 선원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침이 되어도 한암이 선원 개혁 발표를 하지 않자 보문은 머뭇거림 없이 상원사를 떠나갔다. 올라타야 할 때 바로 올라탔고 내려야 할 때 바로 내린 것이다. 1945년 보문이 39살 때이다. 보문이 떠나간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간경, 참선, 염불, 의식, 포교 등 승가오칙을 만들어 그것들을 두루 추구하는 한암 가풍은 오롯이 참선 수행만을 추구했던 보문과는 맞지 않았다.

〈연세대 객원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인재양성과 복지의 전법도량
나주 덕룡산 미륵사


미륵전 전경

회주 백봉 원일
주지 덕룡

● 학교법인벽상학원 세지중학교
● 사회복지법인 백양실버타운

대한불교조계종18교구 미륵사
전남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408-64
전화 061)331-3436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말사
봉 덕 사
주지 현 오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안길 21 전화 062)674-2888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⑰ 천마본생담

▶ 한줄요약
스리랑카 역사서 〈소사〉, 〈대사〉에 전하는 개국설화에 따르면 싱할라가 '탐바파니'라는 섬에 기원전 6세기 나라를 세웠다. 이는 천마본생담과도 연결된다. 스리랑카 민족은 모두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스리랑카 민족 기원설화된 부처님 전생담

우리 한민족이 하늘님의 아들 단군의 자손인 것처럼 모든 나라 혹은 민족은 모두 그들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신비스러운 설화를 가지고 있다. 만약 석가모니 부처님이 민족의 시조 어버이라면 그 후손들은 모두 라훌라와 같은 부처님의 자식이 되며, 저절로 절실한 불교 신자가 될 것이다. 바로 스리랑카의 기원을 석존의 전생을 기록한 본생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뿌리 깊은 친밀성 때문에 현재도 스리랑카 국민의 80% 이상이 열렬히 불교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법사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와 스리랑카의 역사서 〈소사(小史)〉와 〈대사(大史)〉에 전하는 스리랑카의 개국설화에 의하면 '탐바파니' (Tambapan.n.i, 항상 보물이 있다는 뜻)라고 불리던 섬에 싱할라(Sinhala)가 기원전 6세기에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실론의 섬 스리랑카의 풍경을 떠올리면 이른 아침 만다린 오렌지 색 가사를 걸친 스님들이 줄지어 탁발을 나가시는 모습, 흰색의 옷을 입고 스님들께 정성을 다해 공양 올리는 신자들, 길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보리수 나무와 패엽경(貝葉經)의 재료가 되는 패다라니 나무, 흰색의 거대한 스투파와 사원 등 생각해보니 이들 모두가 불교 그 자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 즉, 이전까지 구전되던 경전을 패다라니 나뭇잎에 팔리어로 새겨 성문화한 곳이 스리랑카의 중부 마탈레(Matale)에 있는 알루 비하라(Aluvihara, 새 절이라는 뜻)이라는 점이다. 지난 연재에서 종종 인용했던 547편의 팔리어 자타카가 바로 이 스리랑카의 알루 비하라 사원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이야기의 주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스리랑카인들이 적은 그들의 기원 설화는 어떤 내용일까?

팔리어 자타카 중에서 196번째 '발라하사 자타카' (Valahassa Jataka)가 스리랑카의 기원 설화라고 이야기 한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 아잔타석굴 17굴에 조성된 〈싱할라 아바다나〉. 5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

역사서 小史 · 大史 기록된 설화
부처 전생 천마가 상인들 살려
스리랑카의 기원설화로 여겨져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자부심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니악삐안에 있는 〈발라하사 조각상〉

"먼 옛날 탐바파니 섬에 '실리사 밧투'라고 하는 야차녀들이 사는 성이 있었다. 평상시에 이 섬은 환술로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섬처럼 보이게 소 떼, 쟁기질하는 사람들, 가축 등의 환영을 만들어 놓았다. 이 섬에 조난당한 상인들이 밀려오면 아름답게 차려입고 온갖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수많은 하녀를 거느리고 아이들을 안고 상인에게 다가가 물과 음식을 권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남편도 상인인데, 배를 타고 나간 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 당신들의 아내가 되겠다고 말하며 그 상인들을 유혹하여 야차 성으로 데려가 고통의 감옥에 가두었다.

어느 날 이 섬에 오백 명의 상인들이 조난을 당해 야차녀들의 성 근처까지 흘러오게 되자, 야차녀들이 그들을 유혹하여 성으로 데려갔다. 우두머리 야차녀는 상인 가운데 우두머리인 대상인 싱할라(Simhala)를, 그 외의 야차녀들은 다른 상인들을 각각 자기의 남편으로 삼았다. 우두머리 야차녀가 한밤중에 남편 싱할라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일어나 고통의 감옥에서 남자들을 잡아먹고 돌아왔을 때, 싱할라는 자신의 아내가 사람이 아닌 야차녀임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상인들에게 여인들이 야차녀이며, 또 다른 조난당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을 남편으로 삼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니 도망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상인들 가운데 250명의 사람들은 반대하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여,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만 이끌고 야차녀들로부터 도망을 쳤다. 이때 온몸이 새하얗고 새와 같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신비한 힘으로 하늘을 나는 하얀 말발라하사가 성 근처 호수에서 야생 쌀을 먹고 있었다. 상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천마가 250명의 상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등에 올라타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허리에 올라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꼬리에 매달렸으며, 어떤 사람들은 합장한 채로 서 있었다. 말은 합장하고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250명의 상인 전부를 신비한 힘으로 인간 세상으로 데리고 와서 각자가 살던 곳에 내려놓고 자신이 살던 히말라야로 돌아갔다. 한편 야차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오자 그곳에 남아 있던 250명의 상인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다. 그때 우두머리 상인 싱할라의 충고를 들은 250명의 상인들은 부처님의 제자들의 전생이며, 하늘을 나는 천마 발라하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위의 '발라하사 본생담'은 '말의 왕(Horse King)'이라는 뜻의 '아쉬바라자(Aśvarāja)'라고도 부르며, 천마가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천마 발라하사를 석가모니의 전생이 아닌 관음보살의 화현으로 그리고 상인 우두머리 싱할라를 석가모니의 전생으로 서술한 '싱할라 본생담' 이야기도 있다.

항해 중에 관세음보살이 도움을 준다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관세음보문품(觀世音普門品)'에 바다에서 거친 풍랑이나 나찰을 만나 곤경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과 서로 통하는 이야기로서, 아마도 5세기경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항해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발라하사 본생담'의 주인공이 천마에서 상인 싱할라로 바뀌어 '싱할라 본생담'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사실 현존하는 관련 유물을 보았을 때 천마 발라하사를 주인공으로 한 것이지, 혹은 상인 싱할라를 주인공으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다. '발라하사 본생담' 혹은 '싱할라 본생담'의 이야기를 표현한 것으로 먼저 5세기 후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하는 아잔타(Ajanta) 17굴의 '싱할라 아바다나(Simhala-avadana)'가 있다.

벽화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시작돼 중단을 거쳐 상단에서 끝을 맺는다. 하단 오른쪽에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젓는 상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중단 왼쪽에 어린 아이를 안은 여인과 음식을 든 여인들이 남자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어 야차녀가 상인들을 유혹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실리사 밧투 성안에 각각 두 명의 여인과 남자가 가까이 앉아 음식을 먹거나 신체를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어서 화면의 상단에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남자들, 흰색 말을 향해 합장하는 사람들과 말 등에 타거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남자들을 미혹시켜 잡아먹는 무서운 야차녀들로부터 무사히 탈출하는 긴박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발라하사 본생담'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벽화에는 무사히 섬을 탈출한 싱할라가 군대를 조직하여 나찰녀들의 섬을 정벌하러 코끼리 군단과 말 군단을 배에 싣고 가서 나찰녀들을 무찌르는 장면도 그려져 있다. 이 장면이 대상인 싱할라가 스리랑카를 건국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서, 스리랑카 국민들 스스로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Angkor Wat, 도시의 사원)에는 12세기 후반 자야와르만(King Jayavarman) 7세에 의해 건축된 니악삐안(Neak Pean, 도사리고 있는 독사를 뜻함)이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다. 이 연못의 동쪽 언덕에 거대한 천마 발라하사가 조각되어 있는데, 그 모습이 일반적인 말의 모습과 다르다.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발라하사의 앞 다리는 앞으로 쭉 뻗어 날아가는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현재 날개는 훼손되어 그 흔적만 남아 있다. 목을 감싸고 꼭 끌어안고 있는 사람, 뒷다리에 필사적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 꼬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 표현과 얼굴의 표정이 매우 절박하게 표현되어 있어 탈출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였을지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스리랑카 민족의 시조가 천마 발라하사이든 아니면 대상인 싱할라이든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스리랑카 국민들이 민족의 시조가 석존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불교의 발전과 보호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라도 빨리 되돌아오기를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한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www.bongsunsa.net
대한불교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 (부평리)
사무실 : 031-529-1950, 527-1951 팩스 : 031-527-8568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봉선사
봉선사 개산 1053주년 기념
도전, 큰 말씀 겨루기
제1회 봉선사 교리경시대회
교종본찰 봉선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개산 1053주년을 기념해 제1회 봉선사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대상 : 25교구 본·말사 및 전국 불자대상
개최일시 : 2022. 10. 1(토)~2(일)
1일(토) 오후 1시_어린이, 3시_청소년
2일(일) 오후 1시_일반부
장 소 : 봉선사 청풍루
접수마감 : 2022. 9. 25(일)
출제범위 : 부처님의 생애, 불교 일반상식 전반
봉선사의 역사와 인물
진행방법은 '도전, 범종을 울려라 ' 방식과 동일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제공
참가 및 접수문의 : 031-529-1950 봉선사 포교국

자갈 하나에 한 글자…日, 자갈사경 출토

와카야마현 묘지 공사 중 발견돼
석관 속 자갈석경으로 매립된 것
1752년 조성 '법화경' 사경 추정
문화 지정 추진…전시회 준비도

박영빈 객원기자


자갈 하나에 법화경을 한 글자씩 써서 만든 '자갈사경'. 사진출처=기이민보

일본 중세 불교 사경문화의 독특한 풍습인 '1자 1석경(一字一石經)'이 대거 출토됐다. '자갈사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경은 자갈 하나에 불경을 한 글자씩 써서 모으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경공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행문화다. 8월 30일, 일본 '기이민보'는 묘지 공사 중에 발견된 자갈사경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자갈사경은 일본전국에서 보이는 풍습으로 흔히 사찰이나 마을 신행단체의 발원으로 불사가 이뤄졌다. 완성된 사경은 탑이나 '경총(經塚)'이라는 무덤을 만들어 봉안하기에 실제 유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물다. 이번에 출토된 자갈석경은 와카야마현 카미톤타 마을의 이치노세 지구 경총에서 발견됐다. 이번 출토를 계기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카미톤타 마을 전체에만 13곳의 경총이 있음도 확인됐다.

자갈사경을 발견한 와카야마현 문화재보호 지도위원 이와바시 유키오는 "문화재 위원이자 마을 주민으로 지역 문화재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경총은 이러한 관심 덕에 재발견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경총은 이치노세 지구의 공동묘지 한쪽에 있던 것으로 봉분 없이 비석만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전했다. 묘지의 소유자가 오래된 무연고 묘지들을 정리하면서 공사를 맡은 업체가 경총의 비석을 눈치 채지 못하고 폐기했고 이후 이와바시 위원이 공사 후의 현장답사에서 비석이 사라진 것을 알 곤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이와바시 위원은 "이전 조사에서 비석 아래에 자갈석경이 있을 것이라 추측은 하고 있었다. 공사업체에게 문의한 결과 비석아래에서 석관이 하나 나왔고, 석관 안에 자갈이 가득 한 것으로 보곤 다시 매립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장소에서 다시 발굴한 자갈들에서 경문들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바시 위원은 발견된 경문은 〈법화경〉이라고 전하며 "안타깝게도 원래의 비석은 폐기되어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이 경총은 1752년에 조성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당시 일본 전국을 수행하던 한 수행자가 이 마을에서 극진한 보시를 받은 답례로 경총을 세웠다는 연기도 함께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바시 위원은 "비석과 함께 자갈사경이 함께 보존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남아있는 사경만이라도 마을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밖에도 지역의 문화재 있어 철거나 현황변경의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지역 문화재 위원회에 연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마을 문화재 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이번 발굴을 계기로 지역의 경총과 그 역사에 대한 전시회를 내년 봄에 준비하고 있다. 교육위원인 오타니 하야토는 "지역문화재의 역사적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화재를 지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의 해외 불교 사건사고

안타까운 인명피해…절도사건 잇달아

지난주 해외불교계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시작으로 절도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동남아시아와 미국의 현지 언론들은 현지 불교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8월 29일, 캄보디아에서는 장례식을 집전하던 스님이 갑작스런 폭발사고로 참변을 당했다. 영국의 대표언론 '데일리 메일'은 현지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하여 "장례식의 모든 법요를 마치고 화장로에 점화를 한 스님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안타깝게 참변을 입은 호은 소은 스님은, 사망 당일 한 신도의 장례식을 집전했고 시신 화장을 위해 염불을 외우며 화장로에 불을 붙였다. 화장로가 점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폭발음과 함께 화장로의 철문이 정면에서 기도하던 스님을 향해 날아갔다. 호은 소은 스님은 날아온 철문에 직격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현지 소식통들은 "스님은 70 평생 수천 건이 넘는 화장을 집전해 왔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지역의 모든 화장로는 가동이 중단됐으며 전수조사중이다.

화재사건으로 사찰과 스님 모두가 참변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 9월 3일 태국의 '파타야 메일'은 태국동부에서 일어난 갑작스런 화재로 사찰이 전소하고 거동이 불편했던 고령의


화장로 폭발사고 현장. 사진출처=데일리메일

스님 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태국 촌부리주 시라차군에 소재한 왓 라이 클루아이 사원에서는 8월 31일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일어났다. 불길을 피한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복잡한 내부구조와 광범위한 불길로 인해 진화가 쉽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92세스님이 화마에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사찰을 노린 절도사건도 있었다. 지난 9월 1일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신문 '폭스29'는 뉴저지 주의 캄보디아 불교 사찰이 3개월 간 두 차례나 절도범의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다.

사찰을 관리하는 신도들은 "강도들은 사찰의 내부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과 같은 범인, 혹은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찰 측은 "지난 봄 절도사건의 경우 주지스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를 뒤쫓아 체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미얀마, 군사 쿠데타 후 출가자 지속 탄압

쿠데타 반대발언 한 스님 구금
최소 56명…국제적 도움 호소


양곤에서 군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를 벌이고 있는 스님들.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2021년 민선으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시킨 군사정권이 지난 18개월 동안 쿠데타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최소 56명의 출가자들을 구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29일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RFA)'을 인용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RFA는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되는 군부의 괴롭힘과 체포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지 언론 보도와 소식통을 기반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항의한 스님들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들을 무장 저항 지지자로 낙인찍고 때로는 정식 기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억류된 스님들 중 일부가 이후 석방되긴 했으나 여전히 정확한 수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친군부 민병대원들은 영장이나 그 어떤 합법적인 절차 없이 사찰을 급습하고 존경받는 스님들을 체포했다. 저항하는 스님들에 대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재정 감사를 핑계 삼아 사찰 금고 열쇠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주민은 "군부는 스스로를 불교 보호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 반하는 스님들을 체포하고 대중들과 떨어뜨린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만달레이 지역의 승가 연합회는 "지난해 연합회 소속 사찰에서 여러 스님들이 구금됐다. 스님들 각각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로 올해 7월에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다. 연합회 측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시위에 참가했거나, 공개적으로 반대를 나타냈던 많은 스님들이 사찰을 떠나 피신하고 있다"면서 "군부는 마치 사냥하듯 스님들을 쫓고 있다. 그들이 가진 명단에 오른 스님들이 다른 사찰로 숨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에 대응하여 태국에 소재한 불교도 국제 네트워크(INEB)는 군부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미얀마 출가자들에 대한 긴급 인도적 구호를 위해 국제적인 호소를 전했다. INEB측은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 선봉에는 불교 출가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표면적으로 군부는 불교출가자들에 대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실제론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이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모금에 나섰다.

INEB측은 "현재 최소 20명의 스님들에 대한 식량, 의료 등의 필수적인 생존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 체포된 스님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수감된 스님들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여성출가자에 대한 체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 1천명의 출가자들에 대해 군부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비구니, 수도 개선 위한 모금 성공

돌마링 사원 시설 개선 돌입
인근 사원 차량 구입 모연도


돌마 링 비구니 사원의 비구니 스님들. 사진출처=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가 후원하는 돌마 링 비구니 사원이 오랜 숙원이었던 수도 개선사업을 위한 목표금액을 성공적으로 모연했다. 지난 9월 2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의 보도를 인용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인도 북부 다람살라 인근 캉그라 지구에 있는 티베트 비구니 프로젝트(TNP)는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돌마 링 비구니 사원과 불교 연구소의 수도 개선사업 모금이 목표액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TNP 관계자는 "모금액은 전액 사원과 불교 연구소 수도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사원에 기거하는 4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과 강사진, 유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티베트 여성협회와 티베트망명정부 종교문화부의 후원으로 설립된 TNP는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티베트 난민 출신 비구니들에게 교육과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TNP는 이어 다람살라 인근 슉셉 비구니 사원의 차량 구매사업 모금을 진행 할 예정이다. TNP관계자는 "현재 다목적 차량 구입 목표 모금액은 29,500달러(한화 4,000만원)"라며 뜻이 있는 세계의 불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승도에 드는 세 가지 경우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㉞ 위신력

〈원문〉 그때 승만 부인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 밖에도 다른 큰 이익이 있사오니,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다시 이 이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여 보아라."

승만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 부류의 선남자와 선여인은 깊은 이치에 대하여 스스로 훼손하지 않고 큰 공덕을 내어 대승의 도에 들어갑니다. 이 세 부류의 선남자 선여인이란, 선남자와 선여인이 깊은 법의 지혜를 스스로 성취하는 것과, 선남자와 선여인이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과, 선남자와 선여인이 모든 깊고 깊은 법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경계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세존께 미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남자와 선여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생들로서 저 깊고 깊은 법에 대하여 허망한 말에 이끌리어 바른 법을 등지고 여러 외도들의 짓을 익혀 종자가 썩어버린 이들은 마땅히 국왕의 힘으로나 하늘 사람과 용과 귀신의 힘으로써 조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설〉 부처님의 참된 제자에 대하여 설한 다음 이 장에서는 대승도에 들어가는 세 부류의 선남자 선여인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말하려 하니 부처님이 어서 말해 보라고 재촉을 한다. 여기서 설주(說主)의 역할을 하는 승만 부인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설한다고 말한 점이 특별한 뜻이 있다. 〈화엄경〉에서는 각 품(品)마다 여러 보살들이 등장하여 설주가 되는데 이때 꼭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설한다는 경문의 서술형식이 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위엄 있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힘이 설주에게 입혀져 법이 설해진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강조하는 뜻에서 설해지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믿음의 정도가 약해질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믿음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신력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원래 믿음이란 범어(梵語) 스라다(sradha)를 번역한 말인데, "아, 그렇구나"하고 긍정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불교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란 진실로 그러하다고 믿는 것인데 이때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바르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승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위신력이나 가피력(加被力)에 의지하는 신앙 정서가 깔려 있다. 이른바 기도나 참회 등의 의례(儀禮)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가피력을 의지하면서부터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 그 힘을 의지해 중생이 안락과 이익을 얻고, 수행을 완성해 가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력(自力)으로 하는 수행에도 타력(他力)의 가피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 타력을 우러러 희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 정서인 것이다.

세 부류의 설명에 법의 지혜를 성취하는 것과 법의 지혜를 기꺼이 따르게 되는 것과 부처님께 미루어 부처님은 아시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진실이라고 믿는 세 가지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불언량(佛言量)에 해당한다. 중생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직접 보고 인지하는 것을 현량(見量)이라 하고 간접적으로 미루어 아는 것을 비량(比量)이라 한다. 산 너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불이 났다' 고 아는 것과 담장 너머 뿔만 보고도 소가 있는 줄 아는 것이 모두 비량이다. 그러나 현량과 비량에는 착각이 있을 수 있다. 풀섶에 버려진 새끼토막을 뱀인 줄 아는 변계소집성의 미혹에 의한 착각이 있고 물안개를 연기로 잘못 알면 불이 나지 않는 것을 불이 났다고 여기게 된다. 이럴 때 현량과 비량을 사현량(似現量), 사비량(似比量)이라 한다.

불언량(佛言量)은 성언량(聖言量)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모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므로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 불언량에는 사(似)자가 붙을 수 없다. 이 장에서 밝힌 세 부류의 사람은 대승도(大乘道) 곧 불도(佛道)에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을 구분해 말한 것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마음 변하려면 선정·지혜 닦아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㊼ 마음의 평화와 자유 얻기 위한 수행

진여본성을 회복하는 양약(良藥)

불자 여러분! 부처님은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대의왕(大醫王)입니다. 부처님께서 는 〈법화경〉을 통해서 중생들의 전도몽상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양약을 만들어 우리 곁에 놓아두시고, 우리들이 먹고 낫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그 양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맞는 대기설법(對機說法)으로 갖가지의 처방전과 약을 팔만대장경을 통해 내려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양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무명의 독한 업식에 중독되어 전도몽상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본래의 청정한 진여본성(眞如本性)을 회복하는 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을 믿고 그 양약을 믿고 받아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도몽상을 깨뜨리고 진여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 하는데 이 수행은 요동치는 생멸심을 멈추고 진여본성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선정은 '고요' 에 비유하고 지혜는 '밝음' 에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선정수행은 헐떡이는 분별망상을 끊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 지혜가 드러나게 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저절로 밝아져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밝음과 고요가 조화를 이룰 때 선정과 지혜는 함께 흐르는 것입니다.

멈추어 고요하면 지혜가 또렷해집니다. 지혜가 또렷하면 마음은 이미 고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요와 지혜는 둘이 될 수가 없듯이 선정과 지혜는 항상 함께 흐르므로 정혜쌍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진여본성의 모습 또한 적정(寂靜)한 체상(體上)에 항상 반야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올바른 정혜쌍수를 위해서는 무념(無念)을 실천해야 합니다. 무념의 실천은 반야바라밀의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념의 실천에 대해서는 돈황본 〈육조단경〉 제17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리달마남종정시비론〉에서 하택 신회(684~758)는 무념의 실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망념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일어난 망념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망념은 없어지고 무념이 된다[念起覺知 覺知卽失]"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념의 실천은 일어난 망념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정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念不起]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은 분별망상하는 망념만 없을 뿐이지 무념체상(無念體上)에서 또렷이 비추고 아는 반야지(般若智) 마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문화연구〉 '돈황본 〈단경〉상의 心病에 대하여' 에서 혜능 대사의 좌선법을 인용하여 무념의 실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혜능 스님은 염불기(念不起)의 무념(無念)과 염불기의 무념체상(無念體上)에 작용하는 반야지(般若智)를 둘로 보지 않고 일체(一體)로 보기 때문에 내외의 어떠한 대상경계에도 걸림이 없이 무애자재한 좌선법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혜능 스님은 이미 일어난 망념을 털고 닦는 좌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좌선법 즉 염불기(念不起)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㉞ 학인의 경 2

알려는 마음 안다는 마음 버려야 수행

그래서 존자 아난다는 싸끼야 족의 마하나마에게 말했다.

"마하나마여, 이 세상에 고귀한 제자는 계행을 지키고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하고 식사하는 데 분량을 알고, 항상 깨어있으며, 일곱 가지 올바른 성품을 갖추고, 보다 훌륭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을 제공하는, 네 가지 선정을 뜻대로 곤란 없이 어려움 없이 성취하는 자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과 알고 있다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 곧 수행이다. 그렇다면 수행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수행을 해야 한다. 뭇 삶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활용할 쓰임새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이 그것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동일한 흐름을 갖다보니, 수행도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 여겨 책과 공책, 필기구를 가지고 열심히 습득해서 알아내는 것으로 착각한다.

수행은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 수행은 어떤 새로운 것을 찾아 익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는 것도 아니다. '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찰이면서, 무엇을 '나' 라고 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수행자들은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매진한다. 이 '나' 라는 것이 범인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범인더러 범인을 찾으라 하니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질이 필요하다. 세상일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삼가듯이, 수행도 다르지 않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배려하는 마음은 나의 몸에 시비심을 없애고, 대상에게도 시비심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중국의 남악 회양 선사가 무조건 앉아서 좌선만을 고집하는 마조 스님을 보고 곁에 와서 기와를 갈았다. "무얼 하시는 것입니까?" / "거울을 만들려 한다." / "기와를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 "앉아만 있으면 부처가 되겠느냐?" / "어찌해야 합니까?" / "소가 끄는 수레를 가게 하려면 채찍으로 수레를 치겠느냐 아니면 소를 치겠느냐?" 이 말에 크게 깨닫는 바가 생겼다는 일화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마조 스님은 범인을 찾았다. 지금까지 '나' 라고 하던 놈이 내가 아님을 알아, 수행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 것이다.

주인이었던 이가 객이 되고, 객인 줄 알았던 본질은 주인이 된 것이다. 객이 주인이 아님을 알아버렸으니, 비로소 제대로 수행이 시작된 것이다. 결론을 보고 '이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생겼다' 는 데 초점을 두려 하겠지만, '무조건 앉아서 좌선만을 고집하는' 이라는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까닭은 회향 선사가 마조 스님이 기본적인 수행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고 마지막 길을 터준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 좌선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바깥에 시비심이 사라져 계행이 지켜지고, 감각능력의 문을 수호할 것이며, 식사하는 데 분량을 알 것이며, 항상 깨어있음을 알 것이며, 일곱 가지 올바른 성품을 갖추는 데 게으르지 않을 것이며, 보다 훌륭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에 노력할 것이다.

앎은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없다. 몸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를 바란다. 무언가를 알게 되고, 몸으로 체험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둔다. 자신의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행위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하고, 불필요한 것처럼 행동을 한다. 하지만 본질은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 되어 본 적이 없기에, 누군가가 알았다고 할 것이 없다. 그 본질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알았다면, 그는 이제 함이 없다. 처음 수행할 때, 구하고, 알려 하고, 얻으려고 했던 것을 쉬고, 이제 그럴 필요 없는 완전한 놓여짐의 수행을 한다. 그는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침묵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마음 달이 홀로 밝으니 …'

편찬자 보각, 대중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 조아려 삼배 올립니다.

마지막 13판은 돈이 없어 유고로 남기려 했는데 빈도 가면 할 사람 없고, 12번 배포가 선원 중심이라 사부대중에게 전달 못해 아쉬웠는데, 보시로 문제가 해결되나 대중공양에 값을 매김(권당만원, 농협312-0193-6901-41, 계주:정임상)은 정법이 아니니 돈 없어도 신청하세요.

◈ 10월10일까지 신청서가 도착되어야 마무리하고 동지절 경신일에 갈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7-8번지 501호 위 옥탑법당 보각스님

◈ 사찰명(신행단체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택배에 필요), 신청부수, 입금액 기재해 편지주세요. (전화 010-2458-0379 있으나 이석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문자마저 서툴러 꺼두고 있음.)

◈ 내용 : 신심명, 법보단경, 증도가, 법성게, 천부경, 비파시불 이래 역대불조 전법게, 정법진언, 실참(수행 요령) 등 805면에 소신공양 자세로 소납 정성 모두 담았습니다.

◈ 12판과 다르나 돈이 없으니 선원, 강원, 율원도 신청하셔야 인쇄, 송부가 가능합니다. 군소종단 종도, 청신사, 청신녀도 신청, 정법으로 수행 금생에 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 소납 하직 인사에 가름하오니 부디 열심히 정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소서.

釋迦牟尼佛 瑞相受戒親法子 桓國沙門 曉瞰 釋普覺 謹識

제29회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삼보 귀의하옵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던 지난 2년,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청안하십니까?
높고 청명한 가을, 넉넉한 불령산 자락의 품에서 좋은날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심히 총동문회소식을 알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2시

장소 자양전

문의 054-432-2652

안건 1. 총동문회 운영및 발전방안
2. 장학금 지급
3. 경조사 지급
4. 기타

정암사 승가대학 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유화, 소임자 일동 합장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⑰ 전남 나주 심향사 모과나무

꽃의 눈이 되려면 가고 또 가야겠지

황톳빛 벽에 둥근 기와로 물결을 만든 뒤 빨간 벽돌로 지붕을 얹은 담장과 우윳빛 벽에 일자형 기와로 책장 풍경을 펼친 뒤 처마를 얹어 마감을 한 담장 사이가 입구 같은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일주문 형상을 찾을 수 없다. 평지가 많은 나주에서 가장 높은 금성산 자락이라고 해도 도로와 인접해 그런가 갸우뚱하면서도 입장 신고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좀 더 서성인다. 그때 담장 안쪽 두 나무가 발길을 잡아끈다. 언젠가 염주가 될 수도 있는 씨를 풍선처럼 안고 있는 모감주나무와 녹색을 띤 미래의 염주 열매를 달고 있는 보리자나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눈인사를 전한다. 향기 나는 일주문 같아 더 그윽한 눈길을 보낸다.

하지만 꽃이 진 나무에서는 진한 향기는 나지 않는다. 그래도 봄날에 맡았던 코끝의 감각세포를 기어코 열려고 애쓰며 좌우를 살피는데, 종루 아래 노란 벽에 걸린 플래카드 제목이 갈팡질팡 마음에 빛을 준다.

"꽃의 눈에는 세상이 모두 꽃이다."

그래서 내 눈에는 모감주나무와 보리자나무가 일주문으로 보였나 위로하며 전체 글을 읽어나가는데, 마지막 한 구절에서 낯선 곳에 서 있는 듯한 경련을 일으킨다.

"애인의 눈에는 세상이 모두 애인이고."

절에 들어와 애인이라는 말을 마주하니 최고의 구경은 엿보기라는 끈적끈적한 기분이 들어 묘해진다. 그래서 작가인 두르가 랄 쉬레스타를 찾아보니 네팔 국민 시인이란다. 그래도 생각을 멈출 수 없다. 〈법구경〉에 나오는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라는 문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매번 오독으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해 색안경을 벗어버리기 힘든 여정, 부리나케 계단을 올라 본래 보려고 했던 모과나무를 빙빙 돌다 안내글을 본다.

2017년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고, 수고 15m, 수령 200년, 나무둘레 1.8m라는 나무 이력이 있다. 이어서 1976년 미륵전 도괴 시 상량문이 발견되었는데 건륭 54년 미륵전이 모과나무 밑에 건립되었다는 기록이 있단다. 여기까지는 감정 변화가 물결치지 않는데, 음력 정월 국가와 가정의 안정을 비는 신성한 나무로 존경 받았으며,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인네가 모과나무 아래 미륵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당시 우물을 품어 미꾸라지가 나오면 아들이, 붕어가 나오면 딸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다는 대목에 멈칫한다. 장엄한 모과나무가 효험이 있어서 결과를 주는 건지, 미륵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을 얻는 건지 오리무중일 뿐이다.



전남 나주 심향사 모과나무.

일단은 생각을 미륵으로 옮겨가 심향사 역사를 살펴본다. 천년 고찰 심향사는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당시 이름은 미륵원이었단다. 이후 1011년 거란군이 침입을 해 고려 현종이 나주로 몽진을 오게 되었고, 이 절에 와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를 하였단다. 1976년 미륵전이 폭우로 피해를 입어 복원공사 중 발견된 상량문에서 "금성산 신황사 용화당 중건-건륭 54년-"이란 기록이 나왔는데, 그때가 1789년(정조 13)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심향사는 신황사로 불렸는데, 신황사가 어떻게 해서 심향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마음을 찾는 향기로운 도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심향사(尋香寺)에는 나주 북망문 밖에 있던 3층석탑, 건칠 아미타여래좌상, 석조여래좌상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아 사찰 전체가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8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단다.

미륵전 지붕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을 식히려고 모과나무 그늘로 숨어들다가 연못 같은 계단 아래를 내려다본다. 못생겨서 놀라고, 좋은 향기에 놀라고, 맛이 떫어서 놀란다는 약간 울퉁불퉁한 녹색 열매를 달고 있는 모과나무와 달리, 볏짚처럼 힘을 잃어가는 듯한 버섯 핀 팽나무에 슬픔이 머금어진다. 그래도 맹아지에 잎을 내며 살아가는 모습이 경이로워 기꺼이 고개를 숙여본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얻는다. 심향사 소개글에는 두 나무가 모두 500년이라고 되어 있고, 보호수에는 모과나무 200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걸 떠나 한 공간에서 누구는 일찍 시들어가고 누구는 여전히 건재한지 그 비교에 암울해진다.

장미과에 속하는 모과나무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봄에 다섯 장의 꽃잎이 분홍색으로 피어날 때이다. 가지 끝에서 한 개의 꽃만 피우기 때문인데, 잎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름이 3센티미터까지 되기에 하늘의 연꽃처럼 빛나 보인다. 그래서 여름에는 꽃의 눈이 될 수 없어 감기에 좋은 모과차를 만드는 모과나무 열매가 참외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나무 목(木) 자에 오이 과(瓜)를 써서 목과라고 했다가 모과라고 부르는 모과나무를 떠나 가벼운 등산하듯 경내 곳곳을 걷다 돌아와 명부전 앞에 앉아 먼 모과나무를 본다. 하지만 신경은 설법전 문짝 하나가 바람에 탁, 탁, 탁 들락날락하는 소리에 가 있다. 그게 종루 아래 또 다른 문장인 "마른 낙엽에도 생명의 음악 들리기 바라네"가 될 수 있을까? 꽃의 눈이 되려면 멀고 멀어도 가고 또 가야겠지.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⑯ 황지우의 '진짜 빛은 빛나지 않는다'

모두가 안이고 모두가 바깥이다

진짜 빛은 빛나지 않는다 / 황지우

정각(正覺) 스님은 녹차 티백을 잔에서 건져내면서, 요즘 건강 좋아요, 묻는다.
의자 밑에서 지하철 공사 굴삭기 소리가 덜덜덜 났다.
신생대(新生代)에서 올라온 은행나무 밑을 나는 맹인과 함께 걸어왔었다.
가톨릭센터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구름 위 신호등이 따라 들어온다.
큰스님 휘호라며 진광불휘(眞光不輝)를 펼쳐 보여주는데
수족관에서 지브라들이 떼지어 정각의 옆얼굴을 지나갔다.
다방 레지가 찻쟁반을 보자기로 싸가지고 부리나케 나간다.
천하장사 씨름 선수가 천하장사 씨름 선수를 번쩍 들어올렸다.
어디선가 천장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외환은행 앞 보도에 주차된 그랜저; "내 탓이오"는 샘물체였다.
전투 경찰들이 도열하여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바라나시에서 온 애인 편지를 빨리 뜯어보고 싶어 가고 있는데
맹인이 지하도 입구에 한참 동안 서 있질 않은가. 난 승려에게 말했다.
나는, 어딘가 갈 곳이 있어야 하므로 인도에는 여태껏 안 가고 있다고.
얼룩말들이 지나간 뒤 물속의 먼지; 정각은, 빛나지 않아야 할 텐데,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씨름 선수가 씨름 선수를 아직까지 들고 있다.
나팔수처럼 얼굴을 붉히며. 나는 맹인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사실 모든 길이 낭떠러지 아닌가.
프랑스 왕립 천문학회는 새로 발견된 별에 랭보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든가.
성기를 자른 어느 젊은 스님에 대해 정각은 얘기하기 시작한다.
번개에 의해 드러난 소나무를 본 적이 있겠죠, 내가 물었다.
지하도에는 꼭 광야의 설교자들이 있다.
나는 서울서 내려온 손님들 데리고 망월 묘역으로 갔다.
은행나무 밑에서 나는 맹인과 헤어졌다.
신호등 위 빙수처럼 쌓여지는 뭉게구름; 애완용 개가 혼자서
횡단보도를 쫄랑쫄랑 건너간다. 시청 뒷골목 카시오페아 좌(座)에 앉아
나는 또 다른 먼 별을 올려다봄시롱 밤새 술 마셨다.
요즘도 소리가 들려요, 하고 정각이 물었다.
맹인은 시각장애인협회(視覺障碍人協會)가 가톨릭센터 지하에 있다고 말했었다.
나는 머리에 공기 같은 것이 빵빵하게 찬 것 같다고 말했다.
허공에 뜬 모래 무지개; 바닥에 누운 천하장사는 일어날 줄 모른다.
나는 진광불휘(眞光不輝)를 돌돌 말았다.

–황지우 시집,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酒店)에 앉아 있을 거다〉, 문학과지성사, 1998–

황지우 시인을 처음 만난 건 1990년대 초였다. 당시 필자는 광주(光州) 모 일간지 노조위원장이었고, 황 시인은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였다. 매개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신) 호남대회였다. 언론노련 초대 위원장이 서울신문 파리특파원을 마치고 돌아온 권영길 기자였는데, 평소 권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웠던 황 시인이 뒤풀이 장소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식당 문을 드르륵 열어젖히고 들어서는 황 시인의 모습은 필자에게 꽤 충격적이었다. 우선 차림새부터 그랬다. 어깨까지 내려온 장발에 턱수염에 우람한 체격에 헐렁하고 칙칙한 옷을 입은 황 시인의 모습은 영락없는 보헤미안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소주와 막걸리가 몇 순배 돌아가고 언론민주와 연맹 이야기로 장내가 한창 익어가던 중, 기습처럼 느닷없이 우렁찬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젓가락을 두들기며 황 시인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가창력도 보통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황 시인의 노래가 필자에겐 애절양[哀絶陽. 다산 정약용이 지은 한시(漢詩)로 조선 후기 백성들이 과도한 군정으로 인한 고통을 못 견뎌 음경(성기)을 자른 것을 보고 슬퍼하며 지은 시]처럼 들렸다. 애절한 노래 가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황 시인의 형형한 눈빛에서 필자는 자유와 민주와 해방에의 갈구와 결기를 느꼈던 것이다.(황 시인은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살이까지 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 그때 그 기억을 사뭇 떠올린 것이다. "성기를 자른 어느 젊은 스님에 대해 정각은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구절은 승속을 떠나 구도와 자유를 찾아 온몸을 투신하는 애절의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다. 사설이 길어졌다.

진광불휘(眞光不輝). 한마디로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 이 시가 그렇다. 아니 황지우 시인의 모든 시는 진광불휘(眞光不輝)다. 속안(俗眼)으로는 절대로 (부처님의) 광명을 볼 수 없음을 황 시인은 시에서 매번 보여주고 있다. 황 시인의 삶은 수행과 밥벌이가 불이(不二)이기 때문이다. 그 진광불휘의 맛을 좀 더 보자.

"여름 동안 창가 자미(紫薇)꽃이 붉게 코팅한 통유리;/ 잘못 들어온 말벌 한 마리가/ 유리 스크린을 요란하게 맴돈다/ 환영에 철(鐵)날개를 때리며// 어? 여기가 바깥인데 왜 안 나가지냐?// 무명진역무무명진(無明盡亦無無明盡)// 바깥을 보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지, 허나,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시지// 아아, 울고 싶어라; 투명한 것 가지고는 안 돼// 그해 겨울, 그 통유리창에 눈보라 몰려올 때/ 나, 깨당 벗고 달려나가/ 흰 벌떼 속에 사라지고 싶었다" -황지우의 '유혹' 전문

한 편 더. "해 속의 검은 장수하늘소여/ 눈먼 것은 성스러운 병이다// 활어관 밑바닥에 엎드려 있는 넙치,/ 짐자전거 지나가는 바깥을 본다, 보일까// 어찌하겠는가,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것이 이미 늦었을 때/ 알지만 나갈 수 없는, 무궁(無窮)의 바깥;/ 저무는 하루, 문 안에서 검은 소가 운다" -황지우의 '바깥에 대한 반가사유' 전문

둘 다 같은 시집에 실린 시다. 황지우 시인은 이미 부처의 눈을 가졌다. 진광불휘의 눈을 가졌다. 황지우 시인에겐 모두가 안이고 모두가 바깥이다. 참, 황 시인의 맏형은 승려다. 내력인가 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바쁜 일상, 속도에 쫓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삶의 연속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속적인 삶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 뿐이다.

어떻게,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소원성취기도, 장기요양

한반도 시작, 땅 끝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수행도량 견성원 010-8208-7836

사주명리 / 점술 개인지도 · 애동제자 환영

비바미 신발은
우리 몸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승복과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입니다.

신으면 자연과 지구를 발로, 온 몸으로 느낍니다.
발볼이 넓어 발가락과 발바닥의 기능을 살립니다.
걸으면서 명상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 판매 : vivame.co.kr ◈ 전화 : 02-922-6000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⑨ 사후의 문제에 대하여

▶한줄요약
정토불교에서의 죽음의 해석은 죽음을 고통, 슬픔, 공포 등으로 점철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죽음과정의 '빛', 윤회의 또다른 증명



20세기 초 인도 북서부 다르질링에서 〈티벳 사자의 서(Bardo Thodol)〉 필사본을 발견해 영역본, 〈The Tibetan Book of the Dead〉를 출간한 옥스퍼드대 종교학과 교수 에반스 웬츠(Evans Wentz)는 책의 서문에서 "삶은 죽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책은 죽음의 진리를 일깨운다. 이 책은 의식을 가진 채로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뒤 다시 육체로 돌아온 위대한 영적 스승들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교와 힌두교 등 일부 종교에서는 인간과 동물처럼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세계에 있다고 본다. 만약 윤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죽음 이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따라서 웬츠의 말처럼 삶은 죽음으로부터 나온다.

범죄자, 독립투사, 성직자 등 모든 인간은 일생에서 단 한 번만의 죽음을 맞이한다. 심지어 수십 혹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도 오직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인간의 죽음은 1회로 같다. 그러나 만약 윤회가 존재한다면 사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사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룬 불교의 사상으로는 정토불교가 있으며 죽음학의 영역에서는 근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이 있다.

정토불교의 염불수행은 사후 극락왕생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왕생을 위해서는 임종 시의 염불, 생전의 선행, 계의 구족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만약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목숨을 마친 뒤 불보살의 내영(來迎: 마중을 나오는 것)이 이루어지고 왕생이 성취된다.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중 하나인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단 한 생각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면 왕생하여 불퇴전에 머물게 될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왕생의 종류를 상배(上輩), 중배(中輩), 하배(下輩)의 삼배(三輩)로 분류하며 임종을 맞이한 이를 무량수불과 여러 대중이 함께 내영할 것이라 약속한다.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에서는 삼배에 각각 세 가지 품을 더해 삼배구품(三輩九品)으로 나누고 각 품에 해당하는 왕생의 조건과 더불어 내영에 관해 상세히 묘사한다.

간략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상위 단계인 상품(上品)의 상생(上生)을 위한 조건은 모든 계율을 구족하고 대승경전을 독송하고 염불수행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조건들을 모두 채웠다면 아미타불이 대광명을 발해 임종자의 몸을 비추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및 무수한 화신불과 함께 손을 내밀며 내영이 이루어진다.

상품의 중생(中生)에서는 비록 생전에 경전을 독송하지 않았지만, 불교를 신앙하고 비방하지 않고 인과법을 믿고 계율을 지키고 염불수행을 했다면,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무량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자마금색(紫磨金色)의 연화대를 가지고 임종자 앞에 나타난다. 상품 하생(下生)에서는 인과법을 믿고 수행하며 불교를 비방하지 않고,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다면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많은 보살과 함께 금련화(金蓮華)를 들고 나투어 손을 내밀며 맞이한다고 설한다.

중품(中品) 상생(上生)에서는 오계(五戒)를 잘 지키고 오역죄(五逆罪: 부모와 아라한을 죽이거나, 승단의 화합을 깨거나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미타불이 여러 비구에 둘러싸여 금색광명을 내며 임종자에게 나타난다. 중품 중생(中生)에서는 일생동안은 아니지만 많은 날 동안 계율을 잘 지키고 염불수행을 했다면 아미타불과 여러 보살이 나타나 금색광명을 발하며 칠보(七寶)로 된 연꽃을 가지고 임종을 내영한다.

중품의 하생(下生)이후 부터는 '임종 시에 선지식을 만나 극락과 48대원에 대한 설법 및 불법의 가르침을 듣고 염불하는 것' 이라는 '특별한 요건' 이 추가된다. 왜냐하면 이전의 상위단계처럼 수행, 계율, 선행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품 하생에서는 계율을 지키거나 수행을 하지 못했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타인에게 자비행을 실천한 이가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염불한다면 칠일이 지난 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에게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킨 뒤에 왕생하게 된다.

하품(下品) 상생(上生)은 불교를 비방하지 않고 계율을 어느 정도 지켰으나 악업을 지은 자가 나는 곳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때 선지식을 만나 불법의 가르침을 듣고 염불을 행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이 충족되면 화신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임종자 앞에 나타나 화신불의 광명이 방안에 가득함을 보고 기뻐한 뒤 왕생한다. 하품 중생(中生)은 계율을 범한 자가 나는 곳으로 이 역시 임종 시에 선지식을 통해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듣고 염불하면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맑은 바람으로 바뀌고 천화(天花)가 날리며 꽃 위에서 화신불과 보살이 맞이한다고 설한다.

근사체험 연구서 발견되는
죽음 과정의 '빛' 과의 만남
정토불교의 '광명'과 맞닿아
죽음의 종교적 승화 의미해

마지막으로, 최하 단계인 하품 하생(下生)은 오역죄와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 해당하는데 반드시 임종 시에 선지식을 만나 미묘한 법을 듣고 염불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아미타불을 칭하는 요건을 채워야 한다. 만약 임종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십념(十念)을 행한다면 수명을 마칠 때 태양 같은 금련화(金蓮華)가 임종자 앞에 나타나 왕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위 내용을 보면 상품에서 하품으로 내려갈수록 내영하는 불보살의 규모와 내용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역죄는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받는 악행이지만, 이를 범한 자까지 극락왕생과 내영의 영역에 포함시킨 것은 단 하나의 중생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아미타불의 무한한 포용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각 품에서, '아미타불이 대광명을 발해', 중품에서 '아미타불이 금생광명을 내며 임종자에게 나타남', '아미타불과 보살이 금생광명을 발하면서 칠보로 된 연꽃을 가지고 내영함' 등 빛과 연관된 언급이다. '광명(光明)'은 아미타불의 48대원 중 제3원, "그 나라 중생의 온몸에서 '찬란한 금색광명' 이 빛나지 않는다면(國中人天 不悉眞金色者)", 그리고 제12원, "저의 '광명' 이 한량 있어 백천억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 없다면(光明有能限量 下至不照百千億那由他諸佛國)"에도 나타난다. 이에서 볼 때 '빛' 은 임종과 연관이 있으며 또한 정토불교에서 중시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임종 시 불보살의 내영이나 광명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신앙을 전제한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특히 임종 시 광명의 출현은 죽음학의 중요한 주제인 '근사체험(near-death experience)' 과 연관된다.

근사체험은 입관(入棺)체험처럼 죽음을 임시로 체험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실제로 심정지(心停止, cardiac arrest)가 일어나 사망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깨어난 경험을 말한다. 근사체험 연구의 선구자인 레이몬드 무디(Raymond Moody)는 우연히 근사체험자의 경험을 듣게되고 이를 계기로 약 150여 가지의 체험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놀랍게도 근사체험자는 유사한 체험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 2. 자신의 죽음을 선고(宣告)하는 소리를 들음, 3. 마음의 안온(安穩)과 정적, 4. 울려퍼지는 듯한 소리를 들음, 5.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는 느낌, 6. 물리적(物理的) 육체를 떠남, 7. 타자(他者)와 만남, 8. '빛의 존재' 와의 만남, 9.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 10. 경계 또는 한계를 자각, 11. 소생(蘇生)을 경험.

체험의 항목들 중 주목할 부분은 8번으로, 심장이 정지되고 죽음에 이르면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빛의 존재' 를 경험한다는 점이다. 무디는 그의 저서, 〈삶 이후의 삶(Life after Life)〉에서 "근사체험자들은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사랑과 온정으로 가득한 '빛의 존재' 가 나타나 삶에서 중요했던 사건들을 일순간에 재생해 보여주었다고 증언했다"고 언급한다.

2000년대 이후 의학 학술지에서 근사체험을 다룬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사체험이 의학계에서 다루어진다는 말은 그것이 곧 '과학의 영역' 에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명한 의학저널인 란셋(LANCET)에서 판 롬멜(Van Lommel)은 심정지 후 소생된 환자 344명을 대상으로 근사체험의 사례를 조사해 공통된 경험을 분류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죽었음을 자각함 (Awareness of being dead) 2. 긍정적인 감정(Positive emotions) 3. 체외 이탈의 경험(Out of body experience) 4. 터널을 통과함(Moving through a tunnel) 5. 빛과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 with light) 6. 여러 가지 색상을 봄(Observation of colours) 7. 천상의 풍경을 봄 (Observation of a celestial landscape) 8. 죽은 자와의 만남 (Meeting with deceased persons) 9. 삶의 회고 (Life review) 10. 경계의 나타남 (Presence of border)

앞의 항목들 중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 '죽은 자와의 만남', '체외이탈의 경험', '삶의 회고' 등은 무디의 연구와 일치하며 특히 5번, '빛과의 의사소통' 은 무디의 분류 중에서 8번, '빛의 존재와의 만남' 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사후 빛의 경험은 염불행자가 임종을 맞이한 후 일어나는 〈관무량수경〉의 내영이 나타나는 현상들 중, '만약 염불행자가 임종을 맞이하면, '아미타불이 금생광명을 내며 임종자에게 나타남', '아미타불과 보살이 금생광명을 발하면서 칠보로 된 연꽃을 가지고 내영함' 등과도 유사하다. 이에 근사체험의 연구에서 제시한 사망 이후의 빛의 경험은 논의의 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사후 경험에 관한 연구가 한 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 의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토계 경전에서 죽음 이후 광명의 출현을 언급한다는 점을 연결시켜 보면 임종 시 빛의 출현을 단순히 종교적 영역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빛의 경험을 포함한, 사후 경험에 관한 문제는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주제이며 많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정토불교의 내영에 관한 묘사와 근사체험은 죽음을 고통, 슬픔, 공포 등으로 점철된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죽음의 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다.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

우공침술
개·인·교·습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TLS 침법은 어깨, 허리, 무릎의 통증과 같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 및 수많은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신경학, 면역학적인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락이나 경혈들을 애써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뇌가 통증을 유발시키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TLS 침법으로 자극하는 테크닉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침술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침술을 배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침술을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지나치게 형식화된 경혈을 죽어라고 익히고 그곳에 단순히 침을 찌르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침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발한 침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초보자도 딱 6일만 시간 내시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발한 TLS 침법을 전문가 수준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3일 동안의 속성과정으로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우공침술의 침술 개인지도는 1:1의 철저한 실습위주로 실시되며, 서울은 물론 지방의 어느 곳에서든지 저에게 오셔서 교습을 받으시거나 또는 제가 방문하여 교습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 및 수강신청 : 010-4054-7110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03호 | 15 | 전면광고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무료 교육과 상담을 진행

의처증과 의부증, 악몽 빙의, 모든 신경성 질환에서 오는 여러 증상, 질병치유 심리학, 한의학과 철학, 정확한 원인 분석 치유, 부부문제 전문 상담

문자 010-4078-7810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 • •
010-8721-2198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 • •
010-5049-1533

• • •
사찰음식점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청주 봉은사 공양주 모십니다.
• • •
010-5883-2255
010-7921-2255

• • •
50~60대 비구니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운전, 컴퓨터로 사찰사무 할 수 있는 분
• • •
010-4968-3251

• • •
복지사 자격증 소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카카오톡 접수
• • •
010-8077-8075

성명학 · 타로 · 절간사주 · 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특수한 기도법

전수비 300만원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매매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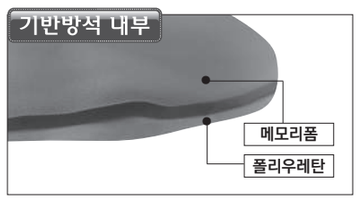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3호 | 16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전국 사찰 양도 접수 받습니다.

사찰 양도를 결정하셨다면
저희 다래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신속하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및 상세내용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안내가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공기 맑고 아늑한 절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지 : 90평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남향 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가액 : 11억원

010-5309-9117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멋진사찰(급급)안내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대지 : 약 173평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5평
●요사채 : 1동 약23평, 1동 약 25평, 2층 약6평
●가액 : 3억2천만원에서 5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포 교 원 안 내

●경남 밀양시, 5층중에 2층, 70평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무료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거리, 사주 하시는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해드리겠습니다.
●보5백만원, 월43만원, 시설비4천5백만원

010-9424-4777

양평, 임야 안내

●서울에서 1시간 거리(동남향)
●약 2,200평(계획관리+보존임야)
●명상과 더불어 조용한 전원생활
●향후 양평↔송파간 고속도로 착공으로 투자성이 매우 좋은 저렴한 땅(평당 : 13만원)

주인직접 010-2215-3657

사찰(급)안내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대지 600평, 건물, 법당, 탑, 산신각, 미륵불, 요사채 2동
●스님 노환으로 급양도 합니다
●시내와 인접해 있습니다
●가액은 상담후 결정

010-2366-2821

사찰(급)안내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암 자 안 내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대지102평, 2층 법당 15평, 1층 생활관 34평
●가액 : 9천5백만원

010-4156-377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 (150m)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도시가스, 난방,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9231-6825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건평 : 약 50평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가액 : 7천5백만원(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

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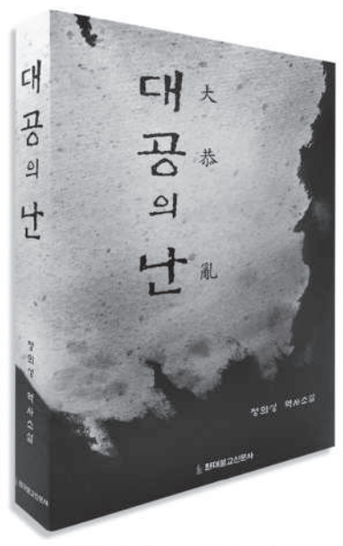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 축하 광고 접수 받습니다

귀의 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진우스님의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을
봉축 드리며 이에 아래와 같이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제37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 축하 광고
■ **광고크기** : 5단컬러 100만원, 1/2단컬러 50만원
■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8204**
jabi2018@naver.com, Fax 02)737-0698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지사지국 접수처 ❖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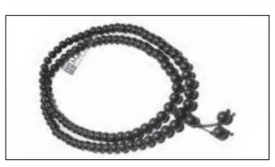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03 호 현대불교 17
2022년 9월 14일(음 8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66년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 자아가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5(남) (독일어로 말함)

혜진 스님(통역) 스님, 저는 오스트리아 비인, 비엔나에서 왔습니다. 자기가 질문할 테니 제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자5(남) (혜진 스님 통역) 약 2, 3년 넘게 선(禪)을 공부해 왔습니다.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가 누구인지 2, 3년간 계속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길을 찾아 오면서 두 번이나 스승을 바꾸었고, 3개월 정도 화계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왔는데 요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그 의문이 내면에서 떠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왔는데 숭산 행원 스님이 이 공부를 하면 자신을, 자아를 발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면의 길을 찾아서 공부를 해 왔는데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는지를 요즘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스님.

큰스님 그런데 숭산 스님 얘기는 또 뭐야?

혜진 스님 화계사에서 여름철을 났답니다, 3개월을. 그리고 내일 비엔나로 돌아가는데 어떤 스님을 만나서 오늘 한마음선원 큰스님 법문이 있다고 그래서 왔답니다.

질문자5(남) (혜진 스님 통역) 스님! 제가 내적 자아, 저를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큰스님 누구나가 다 그럴 이유가 있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이유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자기를 형성시킨 근본 자아가 있거든, 자기를 형성시킨. 자기는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 영혼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된 업식, 그 악업 선업이 전부 같이 혼합이 돼서 형성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문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업식을 다스리면서 내 마음의 근본 자아를 진짜로 자기 뿌리로 생각을 하고…,

혜진 스님 거기까지만요, 스님.

큰스님 허허허….

혜진 스님 (통역한 후) 잘 알아듣습니다, 스님.

큰스님 허허허. 그러니까 그 업식 속에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나오는 자리에다 '너만이 참나가 있는 거를 알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물리가 터지게 할 수도 있고, 지혜를 내게 할 수도 있어.' 하고 되맡겨서 일임한다면 참자기가 거기에서 발견이 돼.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이야, 밑에 앙금이 가라앉아서 시뻘겋게 물이 들어 있는 병에다가, 저 뭐야? 퐁퐁을 조금 넣어서 씻어 가지고서는 맑은 물을 거기다가 받았어. 받으니깐 그 거품이나 뭐나 그냥 쫙 위로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그 나쁜 물이 다 없어지고 맑은 물이 채워지더라고. 연방 맑은 물이 채워지면서 흘러 내려오더라고. 그거와 같애.

'왜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는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그 생각이 나게끔 하는 거니까 없애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에 되맡겨라 이거야. 내 말은 끝났네, 이제. (대중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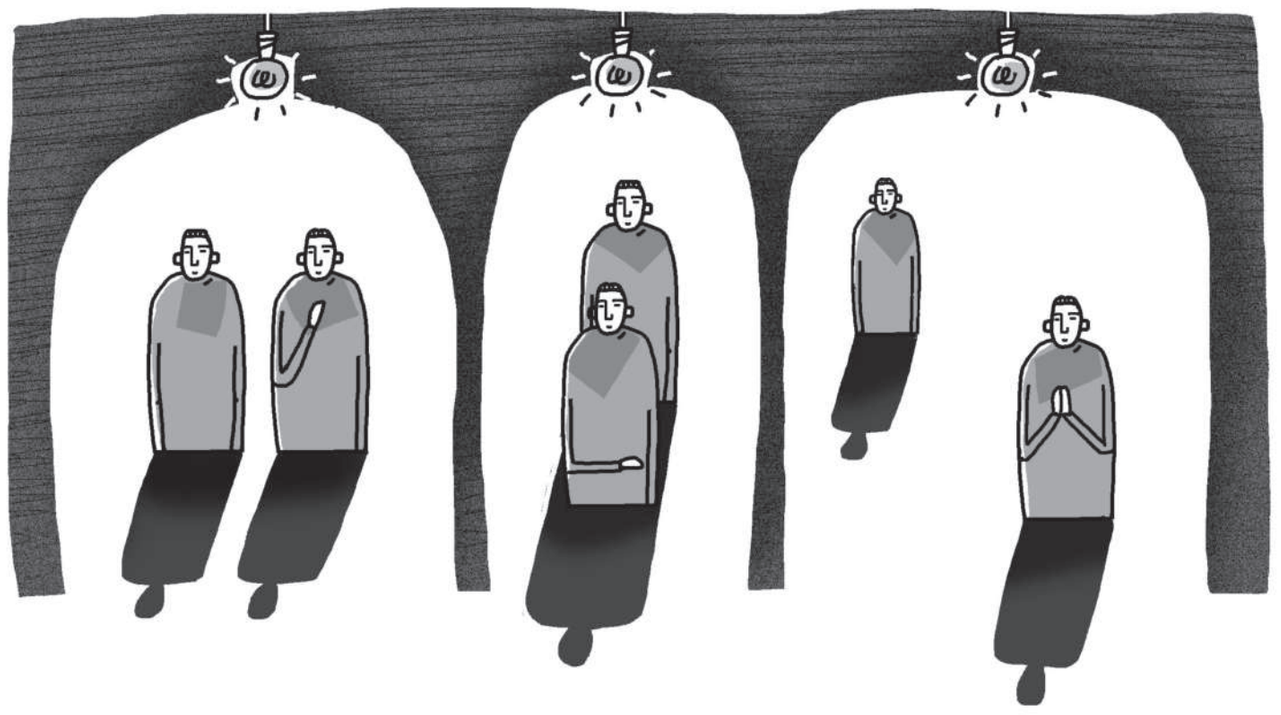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혜진 스님 (통역한 후) 예, 스님.

큰스님 내 말이 끝났다고, 하하하. 이제 영어로 돼 있는 조그만 책도 주고, 잘 알아서 좀 리드해 줘, 답답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 답답한 일은 하나도 없어, 생각하기에 달렸으니까. 금방 누가 뭐, 하혈을 하고 죽는다고 해도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 그만큼 믿고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방방방방 뛰죠. 배 안에 탄 중생들이 그냥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면 배가 뒤집히듯이 말이야. 그건 꼭 뒤집히고 만다구.

질문자5(남)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대중 웃음, 박수)

질문자6(여) 저는 마산에서 왔습니다. 제게는요, 오빠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오빠가 2주일 전에 서울대학병원에 간암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오빠를 도와줄 아무런 힘도 없고, 그런 고민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의 권유로 해서 오늘 서울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빠의 수술이 잘되기를 바라고 스님의 힘을 빌려서 오빠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스님 댁은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질문자6(여) 마산지원 스님 법문은 두 번 들었고 절에 다니기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큰스님 그 전에 절에 다닌 거 말고.

질문자6(여) 한마음 공부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큰스님 이번에 처음 왔다고요?

질문자6(여) 두 번째입니다.

큰스님 두 번? 미약한데, 두 번을 들었으면. 하여튼 한 번을 들었든 두 번을 들었든 절실하게 듣는다면 연결이 될 수도 있죠. 나무와 나무가 서로, 은행나무와 은행나무가 사랑을 하죠. 붙들고 매달리지 않아도 사랑을 하죠. 그거와 같이 그렇게 통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절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물질세계만 믿느냐, 정신세계 자기의 근본을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질문자6(여) 그러면 제가요, 오빠에게 해야 될 말이나 어떻게 뭐….

큰스님 그거밖에 없어요.

질문자6(여) 마음으로?

큰스님 진짜로 믿어서 관하고, 관하면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면서 불이 들어오게끔 그 능력을 기르고 발전을 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질문자6(여) 네, 스님. 앞으로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큰스님 열심히 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도 하게 만들고요.

질문자7(남) 춘천에서 왔습니다. 제가 직장일 등으로 큰스님을 자주 뵙진 못하지만, 큰스님 비디오하고 한마음 회보를 수시로 보고 큰스님께 말씀 들은 거를 한량없이 받아가서, 그걸 심봉 삼아 주인공에 맡기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 가면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반야심경』을 공부한 지 만 5년 만에 나름대로 뜻이 다 와닿더라고요. 그다음에 뜬구름을 보고 '마음법이 뜬구름과 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큰스님 죽비 소리에 '닦을 마음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가서 주인공한테 관하고 맡기고 하는 것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심봉을 잡고 공부를 나름대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전에 관세음보살 정근을 사무실에서 혼자 조용할 때 했었는데, 정근을 해 나가다가 불현듯 큰스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홀연히 대자유인임이 느껴지면서 '열반의 경지라는 게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중생계를 넘어서는 듯한…, 그때 제 눈에 저도 중생이면서 중생들 삶을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듯이 전부 다가 처처 부처님이신데, 단지 자기 본래면목이, 여래장이 여래장임을 모르고 오색무지개를 떠다가 집안에 갖다 둘러놓은 그 일

☞ 18면으로 계속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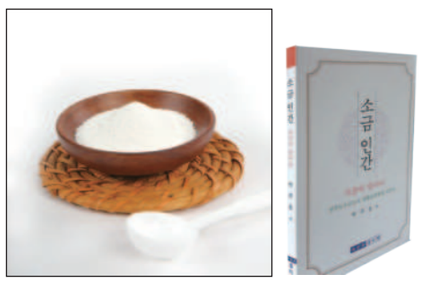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체 유위법을 환상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들 울고불고 야단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큰스님 앞에 앉으면 꼭 이렇게 떨립니다, 허허허.

그런데 매일 예불을 드리거나 그러면 주변에 있는 병든 이, 미혹한 이, 이런 사람들이 저와 공부를 같이 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도 하고 관하고 계속 마음을 내고 그럽니다. 큰스님께서 그전에 '하늘을 보면 웃고 땅을 보면 눈물이 나온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상당히 많이 흐릅니다. 여름철 한낮 나서 울다 가는 매미는 천지가 여름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는 낮만 있고 밤과 새벽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물 안 개구리는 천지가 우물 뚜껑만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습과 업의 그 독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서 울고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런지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을 강변을 하는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능엄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여래가 멸한 후에 말법 시대가 되면 고기 먹고 다 하면서도 소위 '도를 깨쳤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볼 때에는 효봉 스님이나 경허 대선사 같으신 분은 걸림이 없이 행을 하셨는데, 저는 재가 불자지만 마음은 스님같이 끝없이 닦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직장에서 어울리고 하다 보면 뭐, 매운탕도 먹을 때가 있고 술 한 잔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마귀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경허 스님이나 효봉 스님의 그 걸림 없는 행을 보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것이 항상 걸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후에 공부를 어떻게 해 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재가 불자라고 하지만 제가 주변의 사람들하고 매운탕 먹고 이러는 것이 공부를 진정으로 해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큰스님께서 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큰스님 첫째는 자기를 자기가 이끌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자기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들을 제도를 못 했기 때문에, 조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남들에게 보이는 이 모습이 부처님 모습 같지가 않으니깐 그렇고, 하하하. 어때요? '모든 것을 알기만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거는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바뀌고 찰나찰나 나투는데,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는 그 뜻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을 제도를 못 했기 때문이지. 어디로 가,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렇지.

그러니 아는 것만 많고 지식이 많고 모든 걸 달달달달 외워서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다리 병신이 돼서 요만큼 한 발짝을 떼어 놓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눈 한쪽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 그거는 헛거야, 전부. 그래서 부처님이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했다고 하지 마라. 모두 오신통 안에 조복을 받고 오신통을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리고 그 응신이 화해서 천백억으로 나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천백억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는 거를 다 놓으면 혹시 모르지. '아이고, 이것이 열반 경지가 아닌가. 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이게 내가 홀연히 깨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물컵에 물이 들어 있는 거를 보고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물컵을 들어서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내가 (물을 마셔 보이시며)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도 아닌 도예요. '도' 도 이름일 뿐이지, 도 아닌 진실한 도!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다 좀 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는 거를 그 나오는 구멍에, 보고 듣고 알고 이러는 거를 나오는 거기다가 다시, '아는 것도 네가 아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또 듣는 것도 네가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니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되놔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남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속시원히 털어놓고, 진짜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그래서 '공덕이다' 하고 쉽게 말을 하지만, 공덕은 사무사유(四無四有),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 천체가, 우주 전체, 삼라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져서 천차만별로 돌아가고 나투는 그 법을 알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올려놔도 공양이라고 하지 밥이라고 안 그러죠? 공양, '공양을 올린다' 그러죠. 이 세상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공식이니까요. 공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이 될 수 있어야만이 여래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거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이 아니 되면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너, 나가 따로 없이 나투니깐 말이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든 악한 사람을 보든, 그것을 '너는 악해.' 이렇게 보질 마라, '너는 참 잘났어.' 이러지도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건 왜? 나쁜 사람도 금방 좋아질 수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좋게 하는 사람도 금방 언짢은 일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거를 직시하고, 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다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 심봉은 힘만 배출해 주지 움죽거리진 않는다. 그러나 맷돌은 쉴 사이 없이 돌아간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데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갈아 먹으려고 하는 재료를 갖다 넣는다. 그래서 갈려 나오면 그걸 받아먹는다. 그러니까 그 힘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그 심봉만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가 심봉을 똑바로 꽂아야 갈려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갈려 나오는 것도 거기를 믿어야 하고, 갈려고 놓을 때도 거길 믿어야 하고, 감사하게.' 그런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을 담담하게, 내 안으로부터 모든 걸 자아내서 내가 지혜롭게 알도록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생활이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에요, 그냥. 그리고 부처님의 몸이자 우리들의 몸이구요. '일체제불의 마음' 그것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더운 거 찬 거 가리지 말고 더우나 차나, 잘살든지 못살든지, 모든 생활은 우리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탤런트 생활을 해 가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구요. 지금 현재 탤런트로서 맡은 소임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이 요다음 생에도 오는 거니까요.

질문자7(남)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는 금생에 부처님 법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인공 자성 부처님과 큰스님, 그리고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께 그 한량없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세세생생 시방 제불보살 마하살님들, 그리고 대행 큰스님 곁에 있기가 원입니다. 그걸 항상 발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도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눈을 감을 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큰스님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알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덮여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듯하게, 응? 그냥 무지하게, 그냥 들어가라구. 부처님의 마음을 나와 둘 아니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면서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면서, 삼합이 둘이 아니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관하고 들어가게끔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 한국의 불교가 부처님의 마음을 둘 아니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게끔 종지를 세워서 전체 불자들을 이끌어 간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지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모아 놨다가 벌겨서 헤쳐 놓고, 헤쳐 놨다 벌겨 놓고 이렇게 야단들을 하니, 제가끔들 그냥그냥 모두 흩어지죠, 불자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뭉쳐 놨어요, 타의에서 구하는 기도지마는. 그런데 깨우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佛)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서 일체를 하나로 놔라.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각자 흩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지를 않거든요.

이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거를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저런 선사가 그르고 이렇게 선사 타령들을 해 가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딱 이렇게 종지를 해 놓으면, 그거는 수만 명이 깨쳤다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도 아니에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도 그건 여래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체로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여래거든요.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그 아만과 아상, 모두를 다 놔서 내가 깨달아 가지고, 즉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생활하는 데 그대로 응용한다면 좋죠.

질문자7(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큰스님 말씀 하나도 빼먹지 않고….

큰스님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뭐 따로 찾고 이런다면 어떻게 부처님이 여래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한 부처님이 마음을 내면 아촉이 될 수도 있고, 아미타도 될 수 있고, 관세음도 될 수 있고, 지장도 될 수 있고, 칠성 부처도 될 수 있고, 산신도 될 수 있고, 용신도 될 수 있고 모두가 한 부처 속에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용신이란 법을 말하죠? 생각을 내는 거를 바로 용신이라고 해요.

질문자7(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것으로써 오늘 큰스님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오늘 통역 법문까지 하시느라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오늘같이 이렇게 행복감을 느껴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희 공부가 소홀한데 저렇게 타국 만 리에서까지 저희 큰스님을 뵙고 마음공부를 하려고 온 오스트리아 비엔나 청년, 상당히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박수 한 번 보내 주시죠. (대중 박수)

큰스님 (합장하시며) 저분이 좋아하시는데요, 하하하. (대중 웃음)

> 부처님의 마음 뜻에 의해 일체를 하나로 놔라.
> 오직 부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과 둘 아니게 믿어라.
>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행해 나가라.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4년 9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 현불 논단 |

자연이 보내는 경고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지구 역사엔 많은 천재지변 존재
최근 온난화로 인한 재해는 人災
2000년 환경회의서 인류세 등장
'마지막 시대 될 수 있다'는 경고

환경 파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 함께 사는 주민들
불교 궁극적인 목표는 '이고득락'
연기법, 생명공동체를 위한 지혜

지구별의 긴 역사에서 수많은 '천재지변'이 있었다. 땅과 바다가 뒤바뀌는 대지진에서부터 화산 폭발, 대홍수, 긴 가뭄 등이 있었다. 지구별에 사는 중생들의 생존과 삶의 양식은 항상 이 천재지변에 좌우되곤 했다. 이 천재지변은 어찌 보면 지구 생명체의 자기 조직화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 지금 '인재지변(人災地變)'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지구 생명체는 지구별의 역사상 제일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심각한 재해, 생명종의 급격한 감소,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 지구별의 생명체를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 등 일일이 지적할 수 없도록 많은 징후가 있다.

2000년 멕시코에서 열린 지구환경 국제회의에서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지질시대 최후의 시대인 '충적세'에 이어 '인류세'란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인류세'는 경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류가 지구 생명체의 제일 위험한 존재로 거론되고 '인류세'는 지구별의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난을 보면 점점 인류세의 위험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 종래에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들이 몸으로 체감된다. 조그만 마당에 다래나무를 30년 가까이 키우고 있는데, 다래꽃이 피는 봄만 되면 벌들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당을 진동했는데 올봄에는 적막하기만 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니 섬뜩해졌다.

왜 이렇게 인간이 지구 생명체에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였는가? 바로 인간이 지닌 탐욕과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을 인간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세 가지 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탐진치(貪瞋痴)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의 길이다.

오늘날 인간이 만들고 있는 인재지변은 바로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이다. 욕망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적인 욕구이다. 욕망 자체는 선악을 가리기 이전의 상태이다. 문제는 욕망을 관리하는 지혜이다. 욕망을 관리하는 지혜가 없을 때 욕망은 탐욕의 독으로 변한다.

욕망을 관리하는 지혜가 연기론적 세계관이다. 연기론적 세계관은 모든 존재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너와 나 그리고 모든 그들은 상호의존해 생성되고 존재하고 멸하는 것이다. 연기법의 위대함을 체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붓다의 제자 아난다도 연기법의 심심 미묘함을 모르고 "너무 간단합니다"라고 했다가 꾸중을 들은 사례가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인식구조는 주체와 객체, 나와 너, 선과 악 등 이원적으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하고 이러한 이원적 사유 틀은 우리의 뇌를 편안하게 한다. 그런데 연기론은 이를 통합시키면서 연기적 질서를 제공한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지금 지구별과 지구 생명체는 큰 생멸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불교에 있다. 붓다의 연기법은 사회변화에 따라 내용과 적용 대상이 확대돼왔고 시대의 요구와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어왔다. 이제 연기법은 지구 생명체가 함께하는 새로운 자기 조직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도의 역할이 새삼 크게 다가온다.

글을 끝내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 환경파괴의 고통을 받는 자는 환경파괴의 주범이 아닌 자연과 함께 사는 가난하고 선량한 주민이라는 점이다. 이를 어쩌랴.

社 說

불교중흥 위한 백만원력 지속돼야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가장 큰 업적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불사에 사부대중 원력을 모아냈다는 데 있다.

취임 후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종교계는 물론 국가·사회적 재난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조계종은 원행 스님의 확고한 원력과 신념에 기반해 종단 대작불사의 기틀을 다졌다.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결집불사는 단순한 모연불사를 넘어, 불자 개개인의 서원과 정성을 차곡차곡 모아내는 토대였다.

"백만 송이 서원의 꽃으로 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희망과 행복으로 바꾸고자 했던 소승의 진심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길 바란다." 원행 스님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각계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한 인연들에게 저서 〈당부〉를 선물하며 동봉한 편지글이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이유다.

원행 스님은 편지글에서 지난 4년 임기 동안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애정과 소회를 밝혔다. 대내외적 어려움을 딛고 신뢰받는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사 고심하고 숙고했던 심경도 전했다. 스스로 지난 4년 임기를 되짚으며 "불교의 미래를 위한 마음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행 스님의 제36대 총무원장 임기는 9월 27일 만료된다. 그러나 백만원력결집불사를 통해 하나로 모인 불교중흥의 서원은 향후 종단과 한국불교 미래를 담보할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다. 37대 집행부에서도 그 원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힌남노' 수재민에 자비의 손길을

'괴물 태풍'으로 불리며 온 국민을 긴장 속에 몰아넣었던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기고 간 상처가 자못 크다.

불자들이 우려했던 사찰 피해는 경미했으나 한반도 남쪽지대, 특히 경북 포항 일대는 시간당 최대 110.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직격탄을 맞았다. 포항제철소 일부가 침수되면서 용광로 가동이 중단될 만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용광로의 모든 가동을 중단한 것은 쇳물을 처음 뽑아낸 1973년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9월 7일 오전 기준, 포항에서만 9명이 숨졌고 실종과 부상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15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났다. 부산에서는 방파제를 넘은 파도로 해안도로 곳곳의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8만 8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일시 중단됐고 4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우려했던 것에 비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덜하기는 했지만 추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조계종은 이번 태풍으로 사찰 피해는 크지 않지만 수재민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30일까지 '힌남노'로 인한 피해 수재민을 돕기 위한 긴급모금을 실시한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태풍 예고 때부터 전국에 운영하는 사회복지 산하 시설에 피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피해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이번 긴급모금으로 모연된 기금은 수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물품 지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태풍 피해 수재민 돕기 긴급 모금은 9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수재민들의 아픔을 다독여 줄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기대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절식, 음식의 道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라는 추석이다. 결실의 계절인 만큼 오곡과 과일들이 풍성하다. 주먹만 한 빨간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새큼한 과즙이 입 안 가득 터져 여름동안 잃었던 입맛을 되살아나게 했다. 아삭아삭 사과를 맛있게 먹었다. 잠시 후 뱃속에서 커다란 요동이 벌어졌다. 갑자기 밀려드는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둘러 소화제를 삼키는데 주역 산뢰이(山雷頤)괘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이(頤)는 턱을 뜻하는데 입 전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괘의 형상은 입을 닮았다. 위와 아래에 있는 양(⚊)은 위턱과 아래턱을 가리키고, 중간의 음(⚋)들은 위턱과 아래턱에 달린 이빨을 상징한다고 보면 영락없는 입모양이다.

입은 위턱과 아래턱이 같이 움직여서 음식을 씹는 것 같지만 위턱은 움직이지 않고 아래턱이 움직인다. 괘상 역시 상괘 간(艮 ☶)은 멈춰 있는 산(山)으로, 하괘 진(震 ☳)은 움직인다는 동(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괘가 움직여 멈춰있는 상괘와 만나



그림 · 최주현

입 안에서 음식을 씹는다. 입 안의 이빨이 위 아래로 가지런히 있는 것도 씹기 위함이다.

입은 먹는 것만 아니라 말하는 것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대상전〉은 "山下有雷 頤. 君子以愼言語節飮食.(산하유뢰 이. 군자이신언어 절음식.)"이라고 말한다. 이곳에서 이(頤)는 기른다(養)는 뜻으로 해석한다. 산 아래 우레가 요동치는 것이 이(頤)다. 군자는 이 이괘의 형상을 본받아 입에서 나가는 언어를 신중히 하여 덕을 기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절제해 몸을 기르라고 한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석가는 일중식(一中食)으로 대낮에 한 번 음식을 드셨는데, 그것을 점심(點心)이라고 한다. 점심은 마음 한가운데 진리의 점을 찍는 것이지 기름진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다. 간디도 일식을 했고, 유영모는 세끼 식사를 저녁에 한 번 해서 다석(多夕)이라 불렀다.

오늘날은 TV를 틀면 온통 먹는 이야기뿐이다. 사람들은 오직 먹는 재미로 사는 것 같다. 오죽하면 은나라 때 문왕은 인간이 입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頤貞吉. 觀頤 自求口實(이정길. 관이 자구구실)"이란 괘사로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일깨워주었을까? 이(頤)의 도가 바르게 되어야 길하다. 이(頤)를 통찰하여, 자기 스스로 입(口)에 채울 것을 구하라고 한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먹어야 하는지를 궁구하여 자기가 자기를 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던가. 설익은 말은 내뱉고, 달콤한 음식은 가득 씹었던 내 입, 부끄럽다. 〈작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다연기획과 함께 2023 불교카렌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축 행사 용품 및 현수막 제작
각종 불교 용품 판매합니다.



달력 종류 : 벽걸이 특호 / 벽걸이 대 / 벽걸이 소 / 탁상 / 미니 차량 / 메모 수첩

독판 달력 제작 상담 및 카다로그가 필요하신 사찰은 문의 바랍니다.

도서출판 다연기획
Tel 02)723-4301 Fax 02)723-4303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녹야원


부다가야


항하사


나란다대학터


영축산


죽림정사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기원정사


타지마할


델리문화탐방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살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 & 특수지역전문